古典에서 만난

# 우리 금속활자

古典에서 만난
# 우리 금속활자

**총괄** 김미해
**기획** 봉성기, 김효경, 안혜경
**글·편집** 안혜경

**발행일** 2015년 8월 1일
**발행인** 임원선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504
팩스 02.590.0712
홈페이지 www.nl.go.kr

**인쇄처** 원화디앤피 02.2266.4410

ISBN 979-11-5687-162-0 93020
CIP 2015018125

비매품

## 목차
## Contents

들어가며 05
古典에서 만난 우리 금속활자 06
고려시대 금속활자 09
1. 증도가자 10
2. 흥덕사자 12
조선시대 금속활자 13
1. 계미자 16
2. 경자자 18
3. 갑인자
3.1 초주갑인자 20
3.2 재주갑인자 22
3.3 삼주갑인자 24
3.4 사주갑인자 26
3.5 오주갑인자 28
3.6 육주갑인자 30
4. 병진자 32
5. 을해자 34
6. 을유자 36
7. 갑진자 38
8. 계축자 40
9. 병자자 42
10. 현종실록자 44
11. 한구자 46
12. 교서관인서체자 48
13. 율곡전서자 50
14. 정리자 52
15. 정리자체철활자 54
16. 전사자 56
17. 필서체철활자 58
18. 신연활자 60
전시목록 62
고문헌강좌 64

**일러두기**

- 이 책은 201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서 개최하는 상설기획전 "古典에서 만난 우리 금속활자"의 전시 도록이며, 7월 31일 개최하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강좌"의 강연록을 수록하였다.
- 전시자료는 총 25종 62책(점)이며,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이다.
- 도판과 관련해서는 자료명, 편저자명, 판사항, 발행사항, 책수와 판식, 크기, 청구기호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자료의 크기는 세로x가로cm 순이다.
- 전시 관련 설명글은 천혜봉의 『한국서지학』을 참고하였고, 활자크기는 『한국금속활자인쇄사』에서 인용하였다.

# 들어가며

금속활자金屬活字는 활판인쇄를 위해 금속성의 재료를 녹여 거푸집에 부어 만든 활자이다. 금속의 성질에 따라 동활자銅活字, 철활자鐵活字, 연활자鉛活字, 석활자錫活字 등으로 나뉜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고려시대 때 세계 최초로 발명하고 실용화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과학적 지식과 지혜가 더하여져 금속활자의 형태와 주조법, 조판, 인출방법에 있어 끊임없는 개량과 발전을 거듭하였다.

고려시대의 인쇄출판기관으로는 서적원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주자소鑄字所, 교서관校書館, 간경도감刊經都監 등이 있다. 서양의 금속인쇄술은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내어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의 기본이 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국가가 관장하여 제한된 계층만이 그 혜택을 보았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주조한 금속활자로 찍은 고문헌 자료의 전시를 통해 우리의 인쇄기술과 문화수준 발달을 조명해 보도록 한다.

古典에서 만난

# 우리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서적의 생산을 촉진시켜 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인쇄술은 통일신라시대 목판인쇄에서 시작되었다. 목판인쇄는 나무판에 글자와 그림을 새기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오직 한 종류의 책만 펴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책판冊版은 보관이 어려워 잘못하면 못쓰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고려시대에 나무나 금속 등에 글자를 한 자씩 조각 또는 녹여 부어 만드는 활자인쇄가 시도되었다. 활자인쇄술은 목판인쇄술에 비해 활자를 만들고, 배열하여 검사하는 것이 기술면에서 비교적 복잡하다. 그러나 한 벌의 활자를 만들기만 하면 필요한 책을 수시로 조판하여 손쉽게 찍어낼 수 있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으며, 목판인쇄술에 비해 인쇄비용과 인출공정이 줄어들고 생산시간이 빨라지게 된다.

활자는 활자의 재료에 따라 금속활자, 목활자, 도활자陶活字 등으로 세분되며, 그 중 금속활자가 주종을 이룬다. 금속활자의 재료로는 동, 철, 납, 주석 등이 있으며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을 금속활자본 또는 주자본鑄字本이라 일컫는다.

고려 공양왕 4년1392 서적원書籍院을 설치하여 금속활자의 주조와 서적의 인쇄 업무를 관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서적의 인쇄, 출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교서관校書館을 두고, 태종 3년1403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여 다양한 종류의 금속활자를 주조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자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다양한 금속활자본을 살펴보고, 고려·조선시대 활자인쇄 문화의 변천과 발달을 확인해 본다.



### 금속활자의 종류

고려 증도가자, 흥덕사자, 조선 계미자,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을해자, 정축자, 무인자, 을유자, 갑진자, 계축자, 병자자, 경서자, 인력자, 병진왜언자, 현종실록자, 한구자, 교서관인서체자, 원종자, 숙종자, 율곡전서자, 정리자, 정리자체철활자, 필서체철활자, 전사자, 신연활자, 한글 금속활자 등

### 금속활자의 주조

금속활자의 주조鑄造는 가열·용해된 액체형태의 재료를 주형鑄型에 부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금, 은, 동, 철, 납, 아연, 합금에 의한 각종 금속의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주조법으로는 밀랍주조법과 주물사주조법이 있다.

1. 밀랍주조법蜜蠟鑄造法 : 밀납으로 만든 활자틀을 흙으로 싸서 구운 다음 밀납이 녹아내린 그 공간에 쇠를 녹여 부어 활자를 만드는 방법
2. 주물사주조법鑄物砂鑄造法 : 고운 모래를 다져 만든 거푸집에 나무로 된 글자형을 찍어내고 그 공간에 쇳물을 부어서 활자를 만드는 방법

### 금속활자의 조판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서적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인판틀에 찍어내고자 하는 내용의 활자를 배열하여 판을 짜는 조판작업을 해야 한다. 조판법에는 고착식 조판법과 조립식 조판법이 있다.

1. 고착식 조판법 : 사주四周가 고정된 틀에 위·아래 변에 계선界線까지 붙은 고착식 인판틀을 마련하고 그 바닥에 밀랍을 깐 다음 그 위에 활자를 배열하는 방법. 주로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던 방법임
2. 조립식 조판법 : 위·아래 변이나 계선이 붙지 않은 조립식 인판틀에 활자를 배열하는 방법. 빈틈은 파지나 대나무조각을 이용하여 메워서 활자면의 수평을 잡았음. 주로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방법임

### 금속활자의 호칭

1. 활자를 주조한 해의 간지干支를 붙임 : 계미자癸未字, 경자자庚子字, 갑인자甲寅字
2. 기관명을 붙임 : 교서관인서체자校書館印書體字, 교서관왜언자校書館倭言字
3. 글자체를 붙임 : 정리자체철활자整理字體鐵活字, 필서체철활자筆書體鐵活字
4. 자본의 바탕이 된 자료명을 붙임 : 전사자全史字, 율곡전서자栗谷全書字
5. 자본을 쓴 이의 이름을 붙임 : 한구자韓構字, 원종자元宗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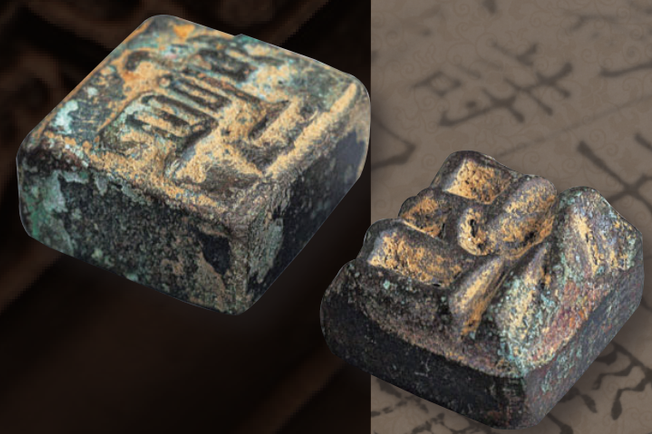
# 古典에서 만난 우리 금속활자

## 고려시대 금속활자

高麗

高麗

우리나라에서 금속활자 인쇄가 고려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대의 저술인 여러 문헌에 실려 있는 기록으로 알 수 있으나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상정예문詳定禮文』 등 고려 금속활자본의 실물이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직지로 알려져 있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 금속활자본의 번각본, 영인본을 통해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자취를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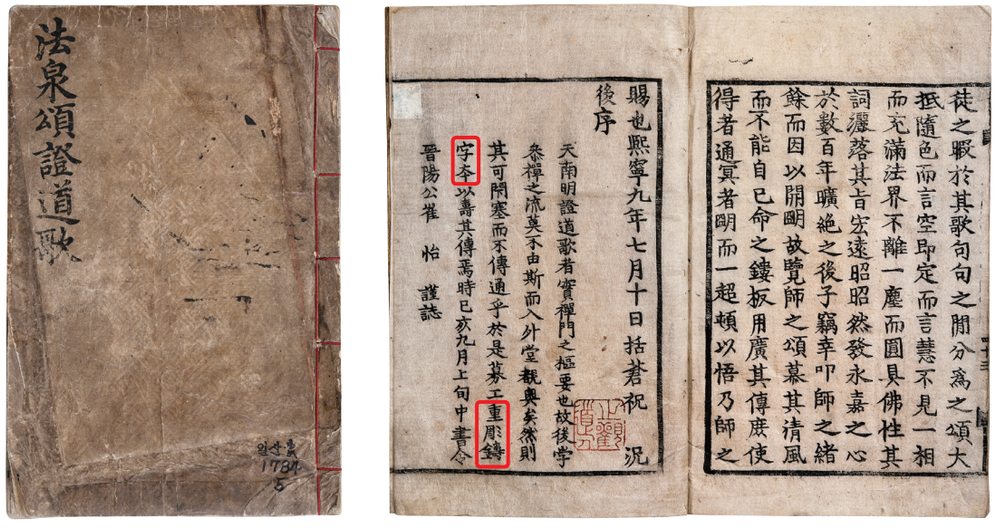
# 증도가자

##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송나라 고승 법천法泉이 당나라 현각선사玄覺禪師가 지은 증도가證道歌 1) 247구의 각 구절 끝에 7자 3구씩 더하여 총 320편을 붙여 선禪의 깊은 뜻을 밝힌 책이다.
주자본鑄字本의 인출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나 1232년 수도 천도遷都 전 개경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책은 개경에서 인출한 금속활자본을 천도 후 강화에서 고려 고종 26년1239에 목판에 다시 새긴 번각본飜刻本 2)이다. 번각의 바탕이 된 주자본은 인쇄기술이 미숙한 초기의 중앙관판이며, 글자체는 13세기 불교서적에서 유행했던 해정한 구양순 서체歐體계통이다.
본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간행한 불서로 고려 금속활자본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증도가는 禪門에서 매우 긴요한 책이다. 참선하는 이들이 모두 이것에 의하여 승당에 들어 깊은 이치를 깨닫고 있는데, 그 전래가 끊겨 유통되고 있지 않아 공인을 모집하여 주자본鑄字本을 [木板으로] 거듭 새겨重彫 오래 전래될 수 있게 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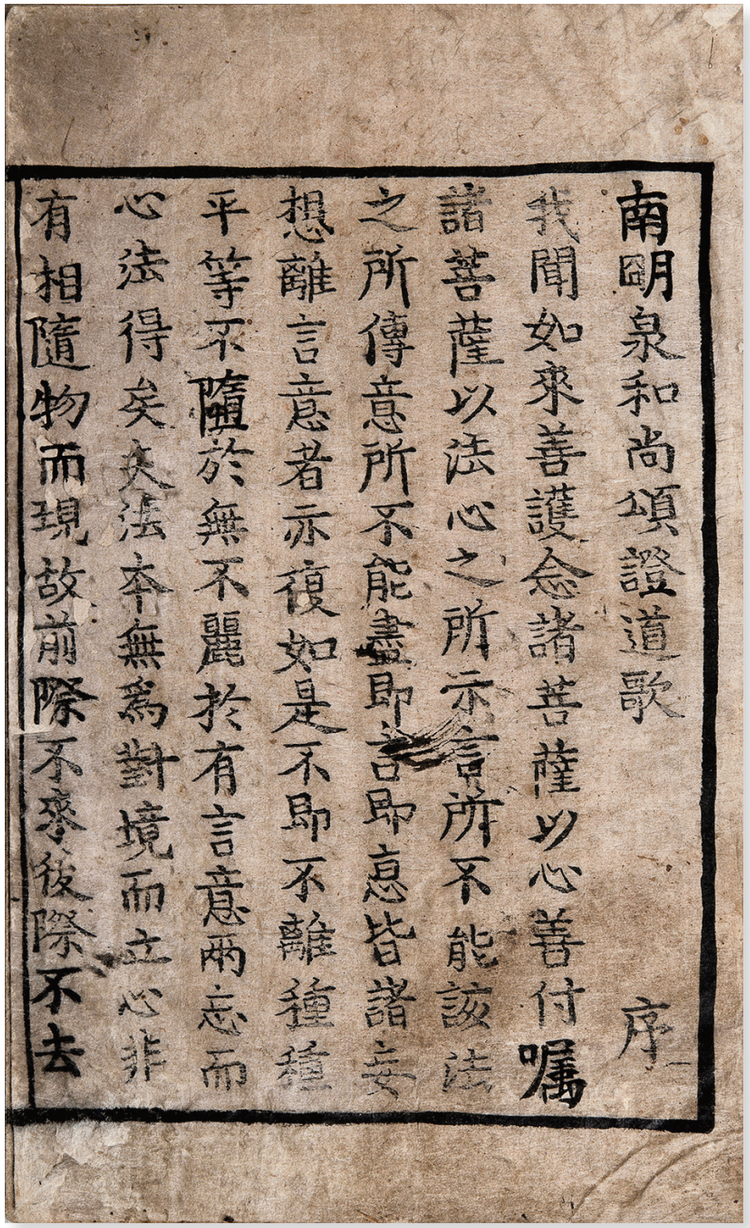
고종 26년(1239) 9월 상순 중서령 진양공 최이崔怡는 삼가 기록한다.




1239년 새긴 번각본의 간기(刊記)

1) 불도(佛道)에 관한 깨달음의 경지를 시로 노래한 것

2) 번각(飜刻)은 활자본 책을 해체하여 인쇄된 낱장을 목판 위에 뒤집어 붙이고, 이를 각수(刻手)가 새기는 작업임. 금속활자본을 저본(底本)으로 한 번각본은 금속활자본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




고려활자 증도가자본을 1239년 번각한 목판본
§ 활자크기 : 1.0 x 1.0 cm

**南明泉和尚頌證道歌**

法泉 著

木板本(證道歌字飜刻), 高麗高宗 26(1239)

45張: 四周單邊 半郭 18.1 x 12.2 cm, 無界, 8行15字, 間混黑口, 混入內向黑魚尾; 23.0 x 15.1 cm (일산貴1784-50)

# 흥덕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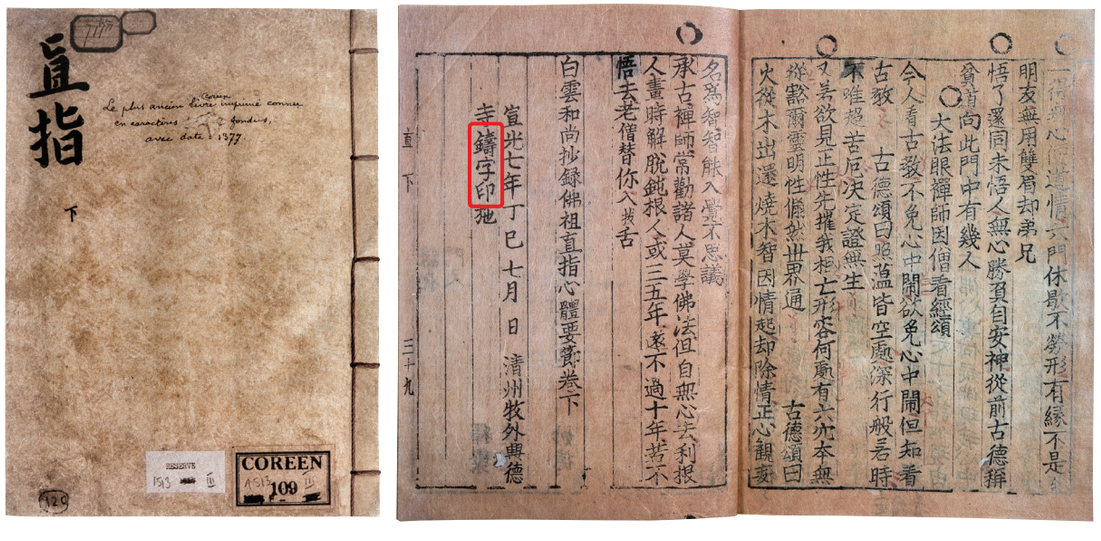
##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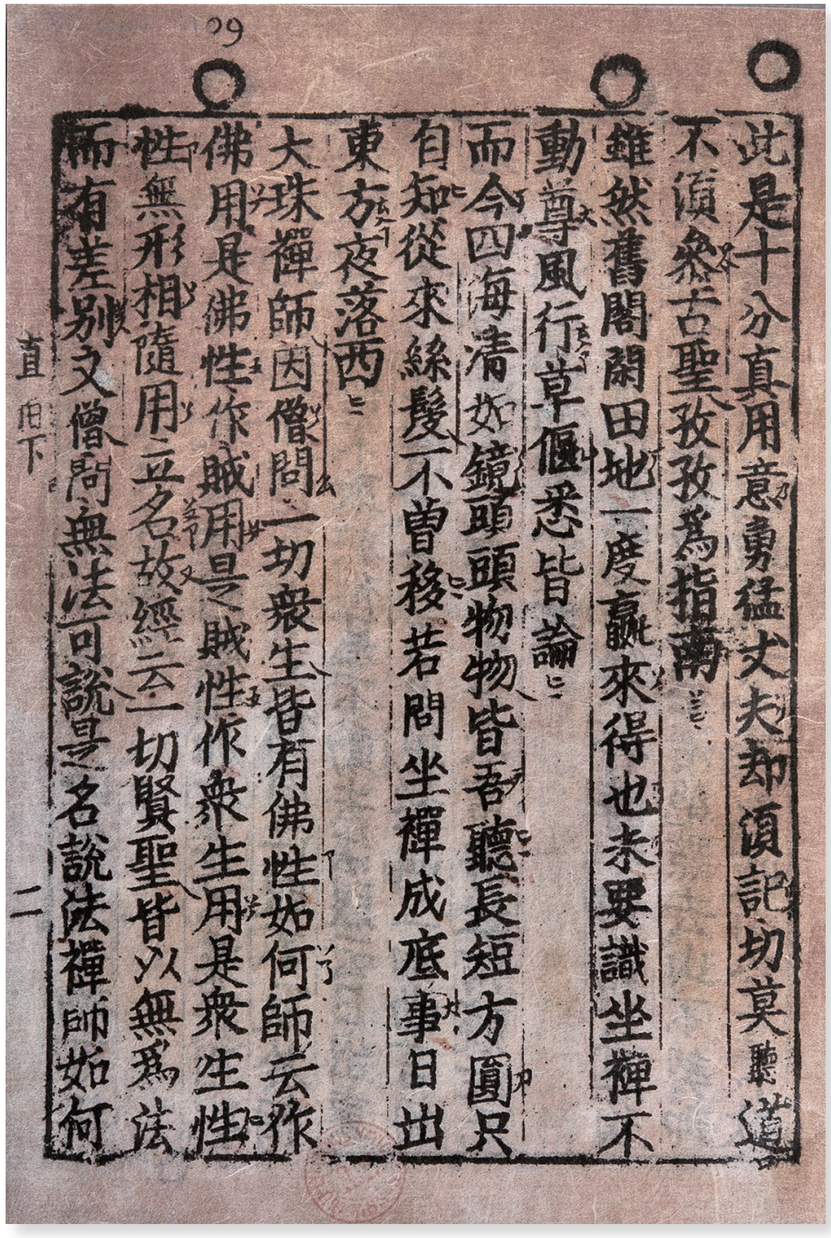
고려말기 백운화상 경한景閑, 1299–1374이 역대 여러 부처와 고승들의 법어, 대화, 편지 등에서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상하권으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고려 우왕 3년1377 청주 흥덕사에서 인출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며, 그 중 하권이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경위는 1887년 초대 프랑스 공사로 부임한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1853–1922가 우리나라에 근무하면서 고서 및 각종 문화재를 수집하였는데, 그 속에 '직지'가 포함되었던 것이다. 플랑시가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대부분의 고서는 모교인 프랑스동양어학교에 기증되었으나 이 책은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Henri Vever, 1854–1943가 180프랑에 구입하여 소장하다가 1950년 그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된 것이다.

宣光七年丁巳七月 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

우왕 3년1377 7월에 청주목淸州牧 밖에 있는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배포한다.



1377년 찍어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금속활자본(영인본)

§ 활자크기 : 1.0 x 1.0 cm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下**

景閑 撰

金屬活字本(興德寺字), 淸州牧: 興德寺, 高麗禑王 3(1377)

38張: 四周單邊 半郭 20.7 x 14.7 cm, 有界, 11行18字; 25.5 x 18.5 cm (古178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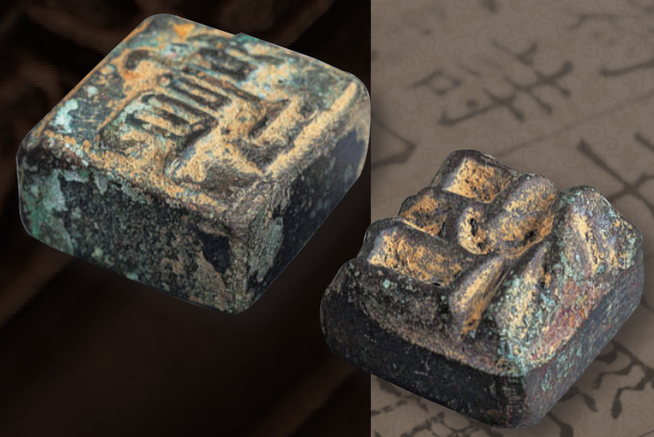
古典에서 만난

# 우리 금속활자

## 조선시대 금속활자

# 朝鮮

1403년 태종이 주자소를 설치한 이래 조선시대 말까지 활자 계보에 든 금속활자는 35종에 이르며,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자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금속활자본을 통해 다양한 옛 활자의 모습을 만나본다.



# 계미자

## 십칠사찬고금통요

중국 태고로부터 오대五代에 이르기까지의 17정사 중 요점만을 뽑아 태종 12년1412 계미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조선왕조는 제3대 왕인 태종 때 와서 기반이 안정되자 억불숭유 정책을 국시로 하여 숭문정책을 펴나갔다. 이를 위해 유생들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책의 보급이 절실하였다. 이에 태종 3년1403 고려의 서적원書籍院 제도를 본받아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고 수개월에 걸쳐 큰 자, 작은 자, 특소자 등 수십만 자를 주조하였다. 계미년에 만든 조선 최초의 동활자라 계미자癸未字로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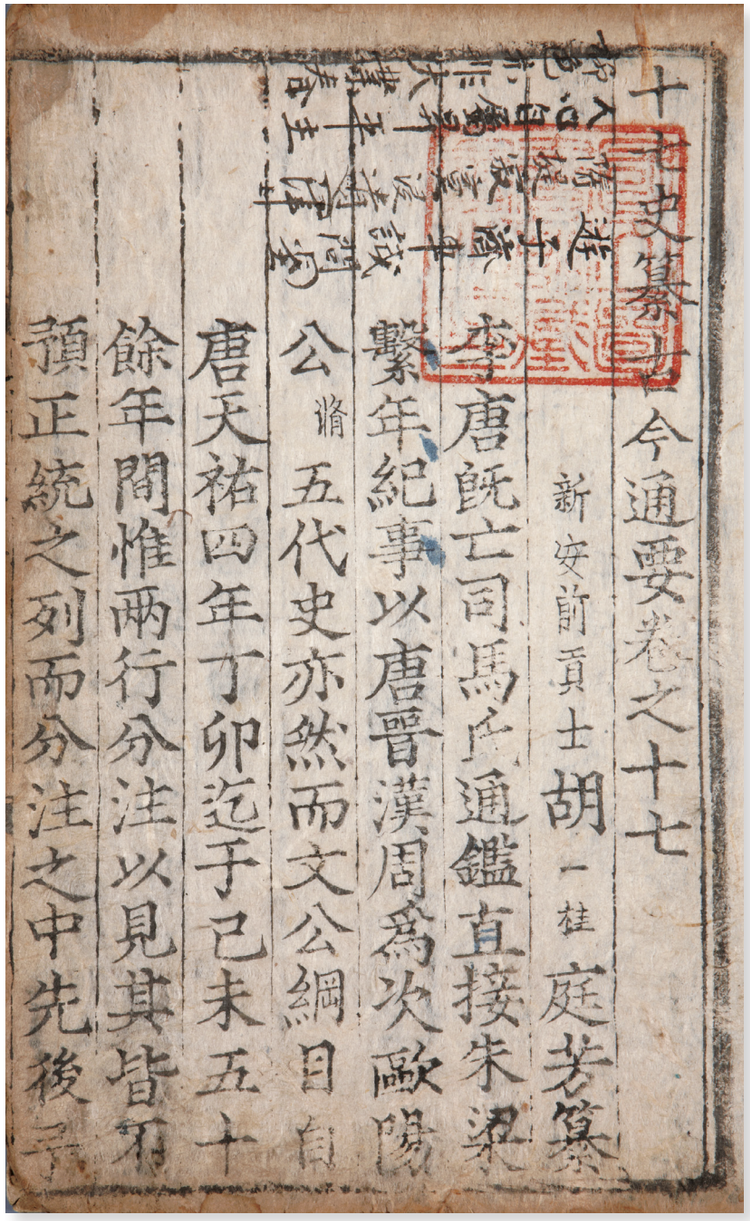
태종께서 영락 원년1403에 좌우에게 이르기를, "무릇 정치는 반드시 전적典籍을 널리 보아야 하거늘, 천하의 책을 다 새기기 어려우므로 구리를 부어 글자를 만들어 서적을 찍어내고자 하니 그것을 널리 퍼뜨리면 진실로 무궁한 이익이 될 것이니라."

– 『용재총화』 권7

새로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였다. 임금이 본국에 서적이 매우 적어서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명하여 주자소를 설치하였다. 내부內府의 동철銅鐵을 많이 내놓고, 또 대소 신료에게 명하여 자원해서 동철을 내어 그 용도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 『태종실록』 1403년 2월 13일

주자소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제공)



1403년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 계미자로 찍은 역사서

§ 활자크기 : 대1.4 x 1.7 cm, 소1.0 x 0.8 cm

**十七史纂古今通要**

胡庭芳(元) 纂

金屬活字本(癸未字), 太宗 12(1412)

1册(32張): 四周雙邊 半郭 23.2 x 14.6 cm, 有界, 8行17字, 上下下向黑魚尾; 25.5 x 18.8 cm (古貴023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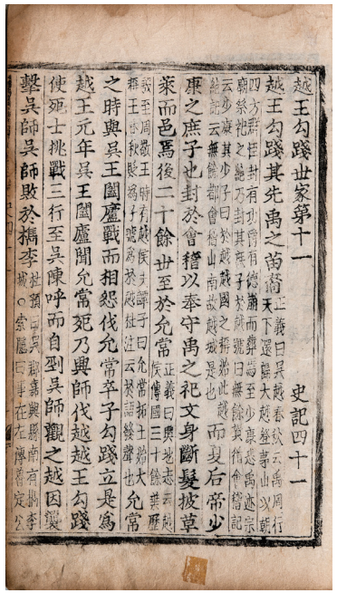
# 경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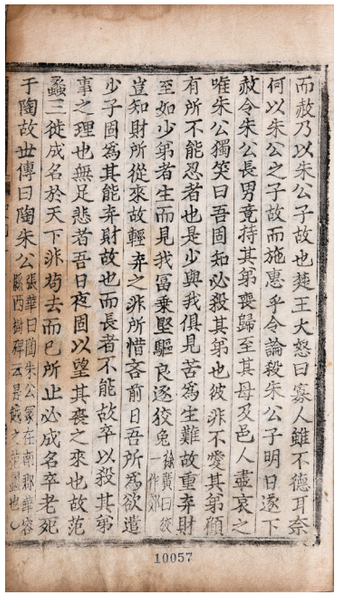
## 사기

중국 전한[前漢]시대 사마천[司馬遷, BC.145–BC.86]이 편찬한 사서로, 황제[黃帝]에서 한 무제[漢武帝]에 이르기까지 2천여 년의 사실을 기록한 최초의 기전체[紀傳體] 역사서이다. 계미자의 모양이 크고 가지런하지 못한 단점을 보완하여 세종 2년[1420] 조선시대 두 번째 금속활자인 경자자[庚子字]를 주조하였다. 글자 모양이 계미자보다 훨씬 작으면서 원필[圓筆]이 한결 짙게 나타나고 있으며, 글자 획에 박력이 있고 예쁘다.
이 책은 세종 7년[1425]에 경자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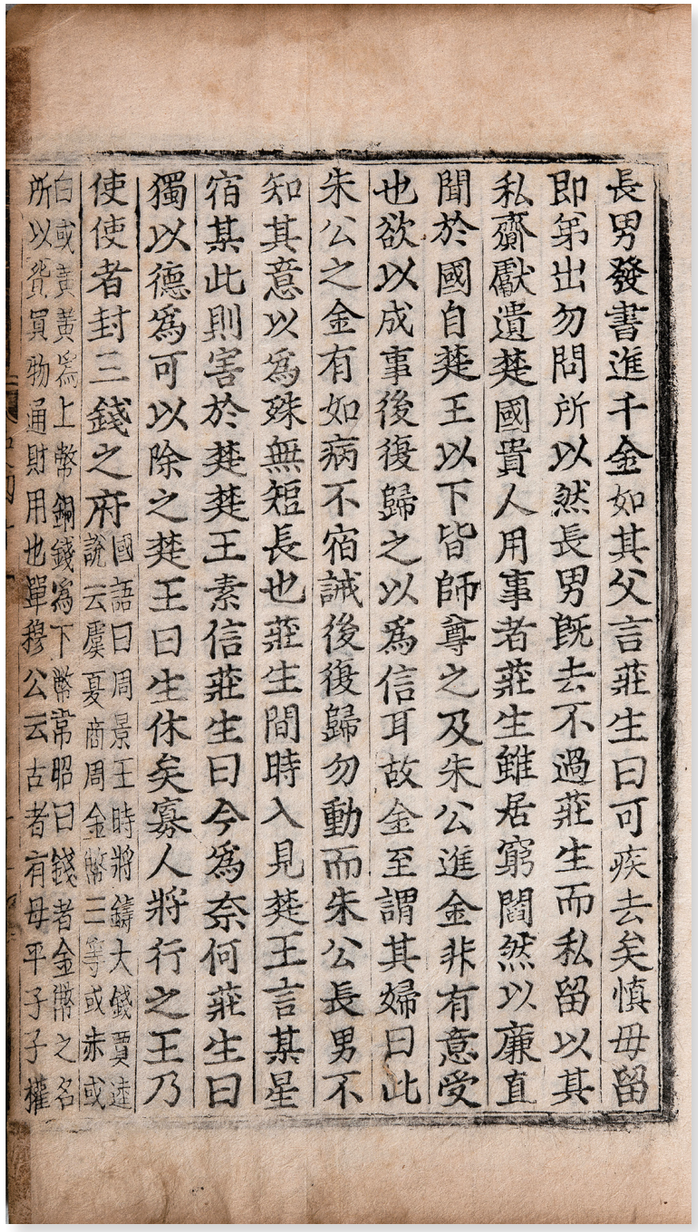
세종이 주자소에 명하여 글자 모양을 고쳐 만들어 책을 찍게 하고, 변계량에게 명하여 발문을 지으라 하니, 그 글에 "주자[鑄字]를 만든 것은 많은 서적을 인쇄하여 길이 후세에 전하려 함이니, 진실로 무궁한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처음 만든 글자는 모양이 다 잘 되지 못하여 책을 찍는 사람이 그 성공이 쉽지 않음을 괴롭게 여기었다. 경자년[1420] 11월에 전하께서 이를 걱정하사 새로 글자 모양을 고쳐 만들게 하시니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였다. 일곱달 만에 일이 성공하니 인쇄하는 사람들이 이를 편리하다고 하였고, 하루에 인쇄한 것이 20여 장에 이르렀다."

– 『세종실록』 1422년 10월 29일


越王勾踐世家第十一　史記四十一
越王勾踐其先禹之苗裔正義曰吳越春秋云禹周行四方群臣封有功會稽而葬焉至少康遂宗禹祭祀之無亡封其庶子於會稽號曰無餘奉禹祭祀云少康其少子曰無餘都會稽山南故越城是也越而夏后帝少康之庶子也封於會稽以奉守禹之祀文身斷髮披草萊而邑焉後二十餘世至於允常


而赦乃以朱公子故也楚王大怒曰寡人雖不德耳奈何以朱公之子故而施惠乎令論殺朱公子明日遂下赦令朱公獨笑曰吾固知必殺其弟也彼非不愛其弟顧有所不能忍者也是少與我俱見苦爲生難故重棄財至如少弟者生而見我留棄堅驅良逐狡兔一作逐兔是知財所從來故輕棄之非所惜吝前日吾所爲欲遣少子固爲其能棄財故也而長者不能故卒以殺其弟事之理也無足悲者吾日夜固以望其喪之來也故范蠡三徙成名於天下非苟去而已所止必成名卒老死于陶故世傳曰陶朱公張華曰陶朱公冢在南鄉離容縣西鄉聲云是越之苦縣也




長男發書進千金如其父言莊生曰可疾去矣慎毋留即弟出勿問所以然長男既去不過莊生而私留以其私齎獻遺楚國貴人用事者莊生雖居窮閻然以廉直聞於國自楚王以下皆師尊之及朱公進金非有意受也欲以成事後復歸之以爲信耳故金至謂其婦曰此朱公之金有如病不宿誡後復歸勿動而朱公長男不知其意以爲殊無短長也莊生間時入見楚王言某星宿某此則害於楚楚王素信莊生曰今爲奈何莊生曰獨以德爲可以除之楚王曰生休矣寡人將行之王乃使使者封三錢之府國語曰周景王時將鑄大錢賈逵說云虞夏商周金幣三等或赤或白或黃黃爲上幣銅錢爲下幣常昭曰錢者金幣之名所以貨買物通財用也韓穆公云古者有母平子子權

1420년 조선 두 번째 금속활자 경자자로 찍은 역사서

§ 활자크기 : 대1.1 x 1.3 cm, 소1.1 x 0.6 cm

**史記**

司馬遷 撰

金屬活字本(庚子字), 世宗 7(1425)

1册(13張): 四周雙邊 半郭 22.8 x 14.7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黑口, 內向黑魚尾; 29.4 x 18.2 cm (일산貴221–32)

# 갑인자 – 1. 초주갑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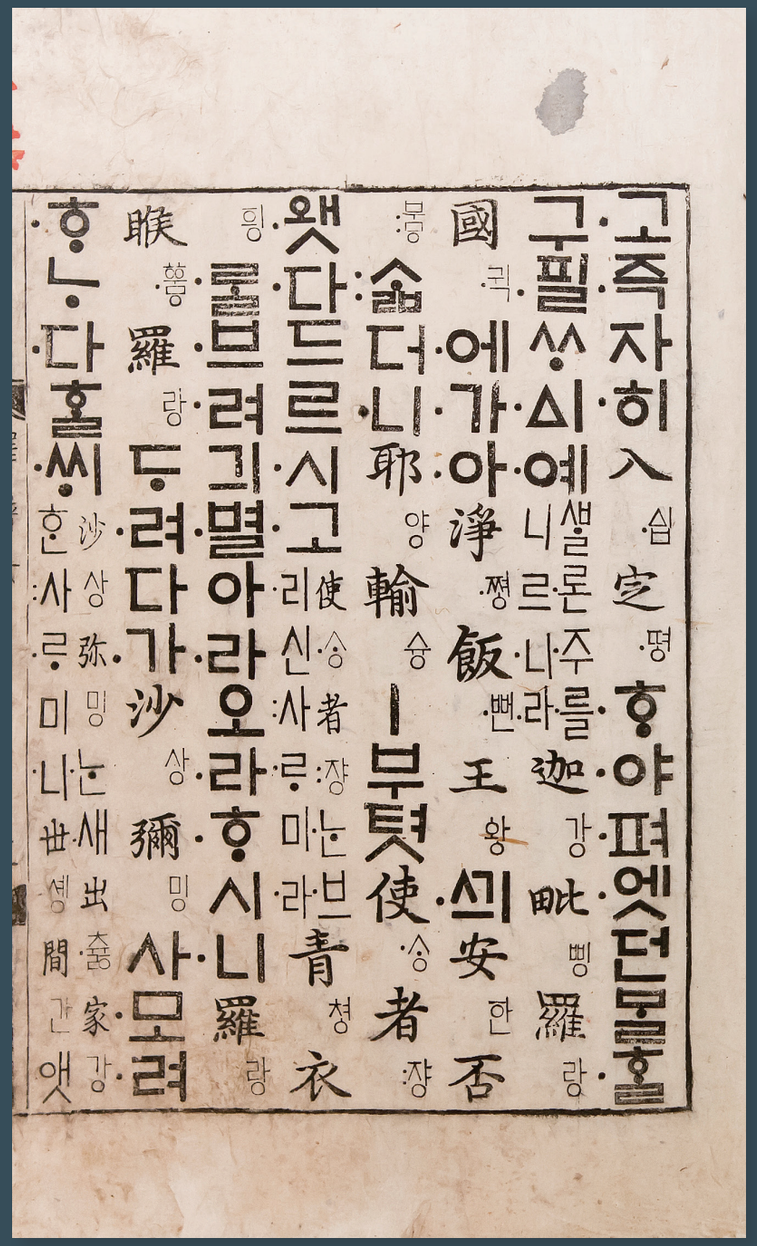
## 석보상절

수양대군이 어머니 소헌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석가모니 일대기이다.
경자자의 글자체가 가늘고 빽빽하여 보기 어려워 좀 더 큰 활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세종 16년[1434] 조선시대 세 번째 동활자인 갑인자[甲寅字]를 주성하였다. 큰 자와 작은 자의 크기가 고르고 활자의 네모가 반듯하고 판판하며 길이를 길게 하여 밀랍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활자를 인판에 심어 완전한 조립식으로 판을 짜는 단계로 발전시켰다. 정교한 주조와 조판에 의한 인쇄술은 우리나라 활자본의 백미로 일컬으며, 글자체가 명정[明正]하고 아름다워 조선후기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주[改鑄]되면서 활용되었다.
본서는 갑인자와 세종 29년[1447] 주조한 한글활자를 병용하여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세종이 이천에게 명하여 큰 글자의 주자[鑄字]를 고쳐 만들어 책을 찍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경연에 간직한 『논어』 등 책의 자형[字形]을 자본으로 삼아, 그 부족한 것을 진양 대군[晉陽大君] 유[瑈]에게 쓰도록 하고 주자 20여 만 자를 만들었다. 이것으로 하루에 인쇄한 것이 40여 장에 이르니, 글자체가 깨끗하고 바르며, 일하기의 쉬움이 예전에 비하여 갑절이나 되었다.

– 『세종실록』 1434년 7월 2일

초주갑인자로 찍은 『분류보주이태백시』 (일산貴3747–88)



1434년 주조한 갑인자와 한글활자로 찍은 『석보상절』
§ 활자크기 : 대1.4 x 1.6 cm, 소1.4 x 0.6 cm

**釋譜詳節**

首陽大君 撰
金屬活字本(甲寅字), 世宗 29(1447)
4册: 四周單邊 半郭 22.0 x 15.9 cm, 無界, 8行15字 註雙行, 黑口, 內向黑魚尾; 30.0 x 23.7 cm (한貴古朝21–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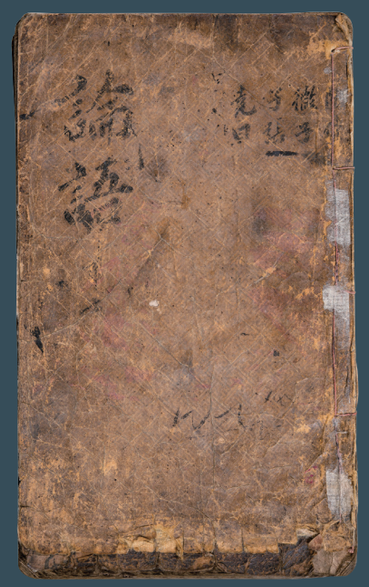
# 갑인자 - 2. 재주갑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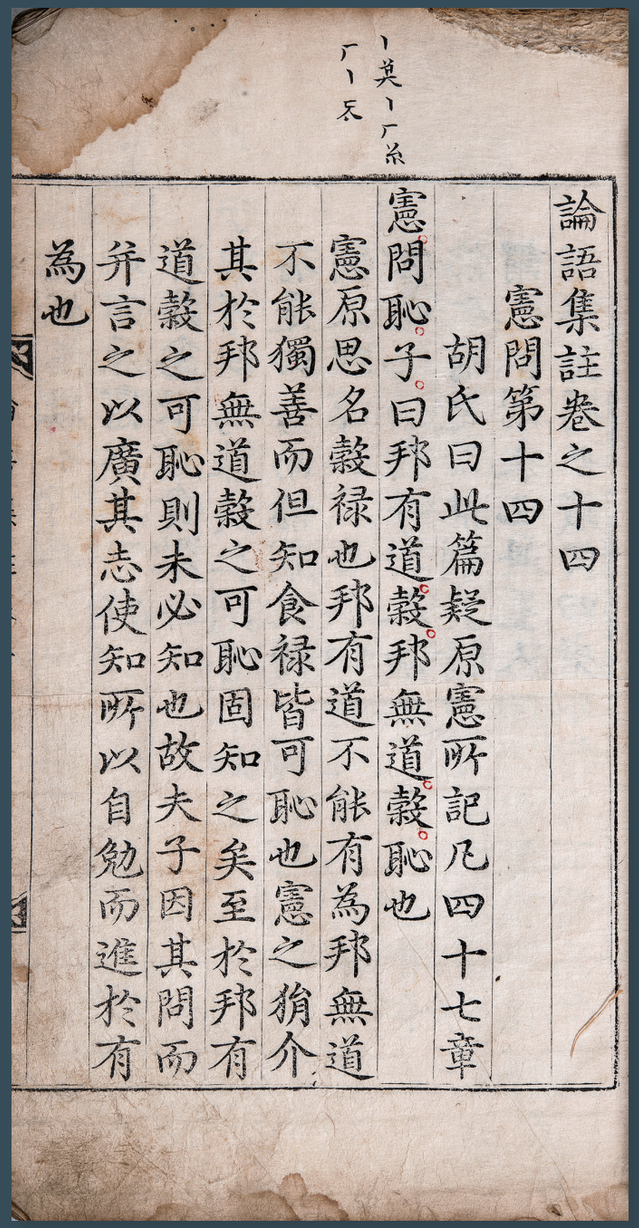
## 논어집주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가 전래되어 오던 『논어』에 송대 이전 주석가들의 해석을 모으고 자신의 설을 덧붙인 책이다.

세종 16년1434 처음 주조한 갑인자가 150년간의 오랜 사용으로 마멸이 심하고 없어지자 선조 13년1580 경진년에 갑인자를 다시 주조하게 된다. 두 번째로 주조한 점에서 재주갑인자再鑄甲寅字 또는 경진자庚辰字라 일컫는다. 대내大內에 소장한 갑인자본 『대학연의』를 내놓아 글자본으로 삼고 주조하였다. 이 때 옛 활자인 초주갑인자는 녹여 쓰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면서 인쇄에 사용하였다. 이 경진자는 초주갑인자에 비하면 주조의 정교도가 떨어져 글자 획이 굵고 둔탁하여 예리한 필력이 없지만 이후 개주한 다른 갑인자계 활자보다는 낫게 주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주갑인자본은 임진왜란의 발발로 인해 종수가 많지 않아 초주갑인자본보다 오히려 희소하며 인쇄가 정교하다.





論語集註卷之十四

憲問第十四

胡氏曰此篇疑原憲所記凡四十七章

憲問恥子曰邦有道穀邦無道穀恥也

憲原思名穀祿也邦有道不能有為邦無道不能獨善而但知食祿皆可恥也憲之狷介其於邦無道穀之可恥固知之矣至於邦有道穀之可恥則未必知也故夫子因其問而并言之以廣其志使知所以自勉而進於有為也

1580년 주조한 재주갑인자 경진자로 찍은 『논어집주』

§ 활자크기 : 대1.4 x 1.6 cm, 소1.4 x 0.8 cm

**論語集註**

朱熹 集註

金屬活字本(庚辰字), 宣祖 13(1580)

55張: 四周雙邊 半郭 26.3 x 17.0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35.8 x 21.5 cm (古1239–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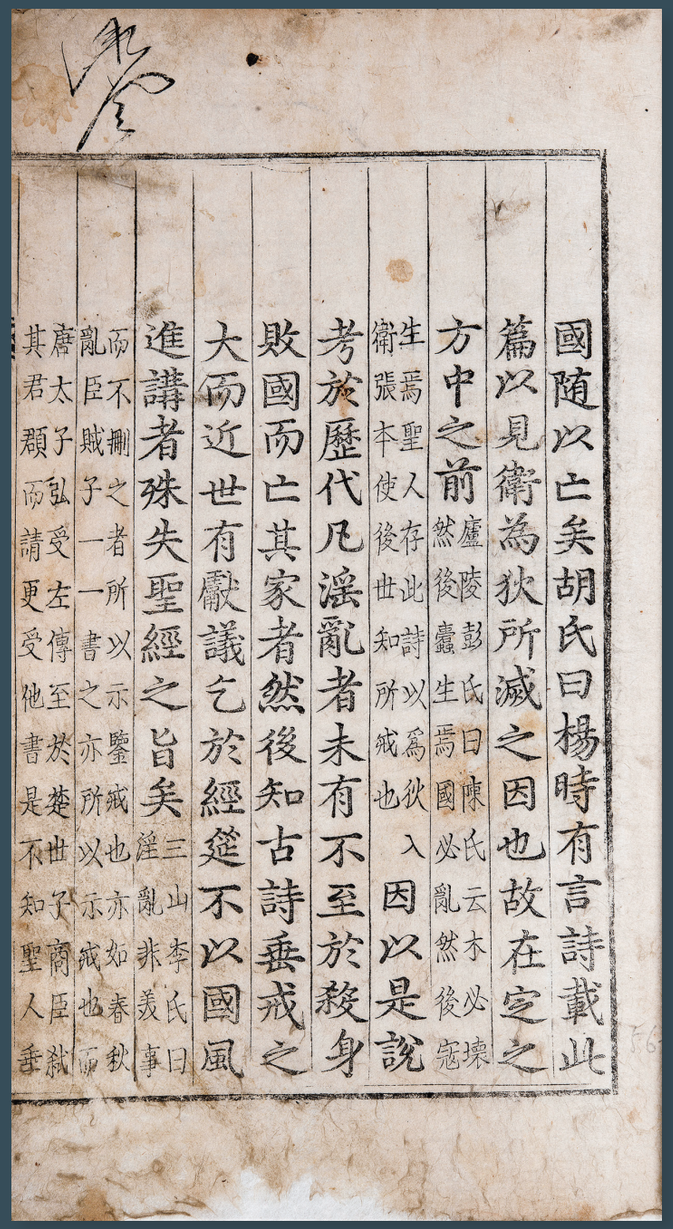
# 갑인자 – 3. 삼주갑인자

## 시전대전

『시경詩經』의 여러 주석을 모아 명나라 성조의 명으로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책이다.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던 종래의 주자제도를 복구하고자 광해군 9년에 주자도감鑄字都監을 설치하고 동왕 10년1618 갑인자를 세 번째로 다시 주조한 것이 삼주갑인자三鑄甲寅字이다. 그 해의 간지干支를 따서 무오자戊午字라 부르는데 그 전래본은 많지 않다. 주조가 거칠어 글자획이 둔탁하고 인쇄가 정교하지 못하다.

주자 도감이 아뢰기를,
"평시부터 서적을 인출하는 것은 오로지 활자에 힘입었는데, 그 후 경진년에 선왕께서 갑인자를 다시 고쳐 만들도록 명하셔서 나라에 통행하여 만세토록 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한번 병란을 겪어서 옛 활자를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목각木刻을 사용하게 되니 자체字體가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쉽게 닳아 없어져 금방 새겨도 금방 깎여져 힘과 비용이 배나 듭니다. 다행히 성상께서 경적經籍에 마음을 두시어 옛 제도를 회복시킬 생각으로 특별히 국局을 설치토록 해서 열성列聖의 문文을 숭상하는 뜻을 계술하셨으니 어찌 오늘날의 성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각건대, 그 녹여서 야금하는 것이 세밀하고 공역이 아주 큰 데도 전후에 담당한 낭청이 진심으로 감독하여 일 년만에 공역을 마쳤으니 극히 가상합니다. 예에 따라 수고에 보답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은전에 관계되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제조 이하 일한 사람들의 일한 날짜와 공장工匠이 일을 한 달수를 일일이 상세히 서계하라." 하였다.

– 『광해군일기』 1618년 7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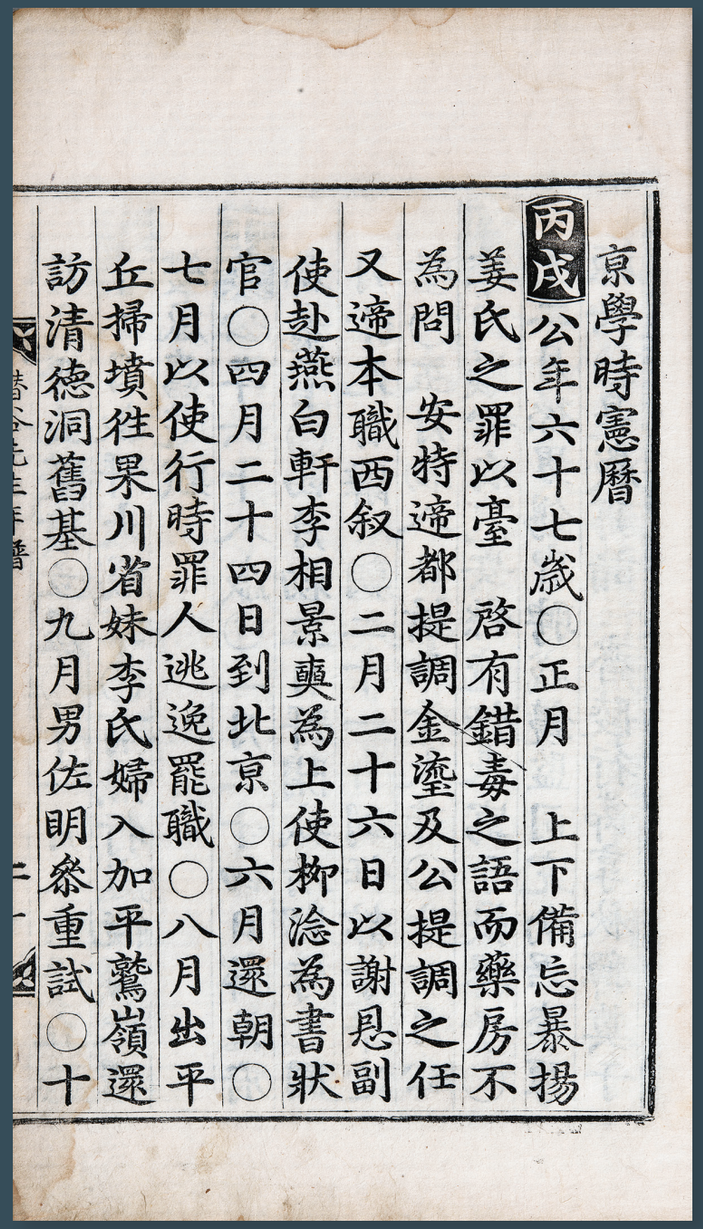
1618년 주조한 삼주갑인자 무오자로 찍은 『시전대전』
§ 활자크기 : 대1.4 x 1.6 cm, 소1.4 x 0.8 cm

**詩傳大全**

胡廣(明) 受命編
金屬活字本(戊午字), 光海君年間(1609–1622)
1卷1册(缺帙): 四周雙邊 半郭 22.9 x 17.0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35.7 x 22.3 cm (古貴1233–69)

## 잠곡선생연보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김육金堉, 1580–1658의 연보이다.
수어사守禦使로 있던 김좌명金佐明, 1616–1671이 현종 9년1668 수어청에서 큰 활자 66,100여 자와 작은 활자 46,000여 자의 동활자를 주조하여 무신자戊申字라 하였다. 갑인자의 개주 차례에 따라 네 번째 주조한 갑인자인 사주갑인자四鑄甲寅字라고도 일컫는다. 무신자도 개주갑인자로는 정교하지 못하나 앞선 삼주갑인자보다는 박력 있게 주성되었으며, 영조 말기까지 100여 년간 사용되어 그 인본의 종수가 매우 많다. 오랜 사용으로 현종 연간과 숙종 전기에 인출된 책은 인쇄가 정교하지만, 그 후 영조 연간에 인출된 것은 활자가 많이 닳고 이지러져서 인쇄가 조잡하다.
이 책은 무신자의 초기 인본으로 활자가 정교하여 인쇄가 깨끗하며, 판심 위 아래의 내향어미內向魚尾에 굵은 삼엽화문三葉花紋이 새겨져 있다. 후기의 인본이 되면 이엽화문二葉花紋이 등장하고 마멸된 활자와 나무 보자補字가 많아지므로 형태적 변천에 의해 책의 인출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京學時憲曆
丙戌 公年六十七歲○正月 上下備忘暴揚
姜氏之罪以臺 啓有錯毒之語而藥房不
爲問 安特遞都提調金塗及公提調之任
又遞本職西叙○二月二十六日以謝恩副
使赴燕白軒李相景奭爲上使柳淰爲書狀
官○四月二十四日到北京○六月還朝○
七月以使行時罪人逃逸罷職○八月出平
丘掃墳往果川省妹李氏婦入加平驚嶺還
訪清德洞舊基○九月男佐明參重試○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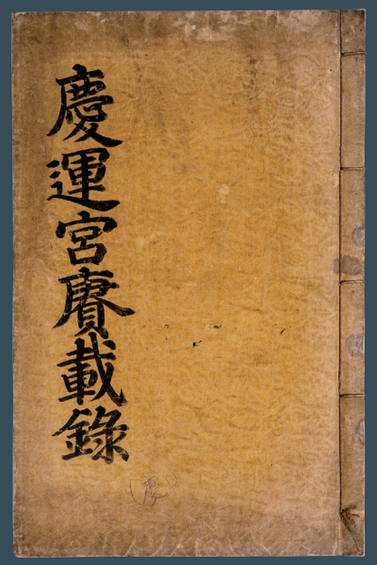
1668년 주조한 사주갑인자 무신자로 찍은『잠곡선생연보』
§ 활자크기 : 대1.4 x 1.6 cm, 소1.4 x 0.8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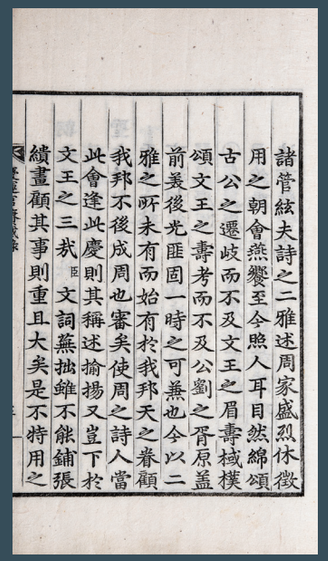
**潛谷先生年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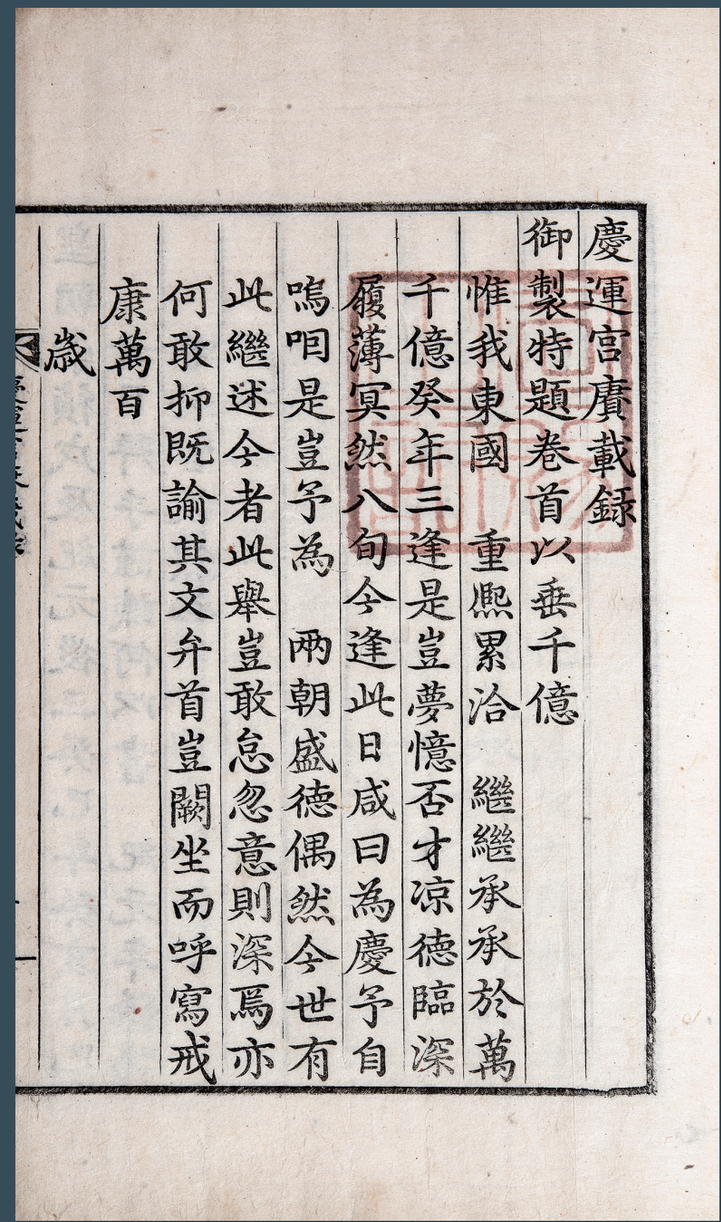
金屬活字本(戊申字), 顯宗 11(1670)
金屬活字本(戊午字), 光海君年間(1609–1622)
56張: 四周雙邊 半郭 25.3 x 16.4 cm, 有界, 10行18字, 內向3葉花紋魚尾; 33.5 x 21.4 cm (일산古2511–10–22)

## 경운궁갱재록

경운궁慶運宮에서 영조의 어제御製에 이어 여러 신료들이 지어 올린 시를 모은 시집으로, 영조를 비롯하여 모두 43명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영조 48년1772에 다섯 번째로 개주한 오주갑인자五鑄甲寅字를 찍어냈으며, 주조한 해의 간지干支를 붙여 임진자壬辰字라고도 한다. 임진자 주조 시 동銅의 사용량을 대폭 줄이면서 손쉽게 식자植字하는 방식의 조판인쇄술이 개량되었다.
이 활자는 마지막으로 개주한 다음 장의 정유자丁酉字와 글자 모양이 아주 닮아 그 식별이 쉽지 않다. 임진자는 주조되자 교서관校書館에 두고 정유자는 규장각의 본원인 내각內閣에 따로 두고 사용했는데, 책을 찍을 때는 당시 주로 사용했던 임진자, 정유자, 재주한구자 중 어떤 활자를 택할 것인가를 임금에게 품의하여 사용하고 다 쓰면 원위치로 돌려보내서 보관하도록 하였다.




1772년 주조한 오주갑인자 임진자로 찍은『경운궁갱재록』
§ 활자크기 : 대1.4 x 1.6 cm, 소1.4 x 0.8 cm

**慶運宮賡載錄**

英祖外諸臣 著
金屬活字本(壬辰字), 英祖 49(1773)
24張: 四周單邊 半廓 25.0 x 16.9 cm, 有界, 10行18字, 上2葉花紋魚尾; 34.9 x 22.4 cm (일산古3649-13)

# 갑인자 – 6. 육주갑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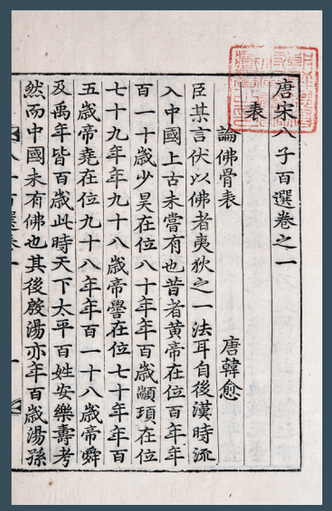
## 당송팔자백선

정조가 당송唐宋 고문의 문풍을 진작시킬 목적으로 소순蘇洵, 소식蘇軾 등 당송팔대가의 글 가운데 백 편을 손수 골라서 묶어 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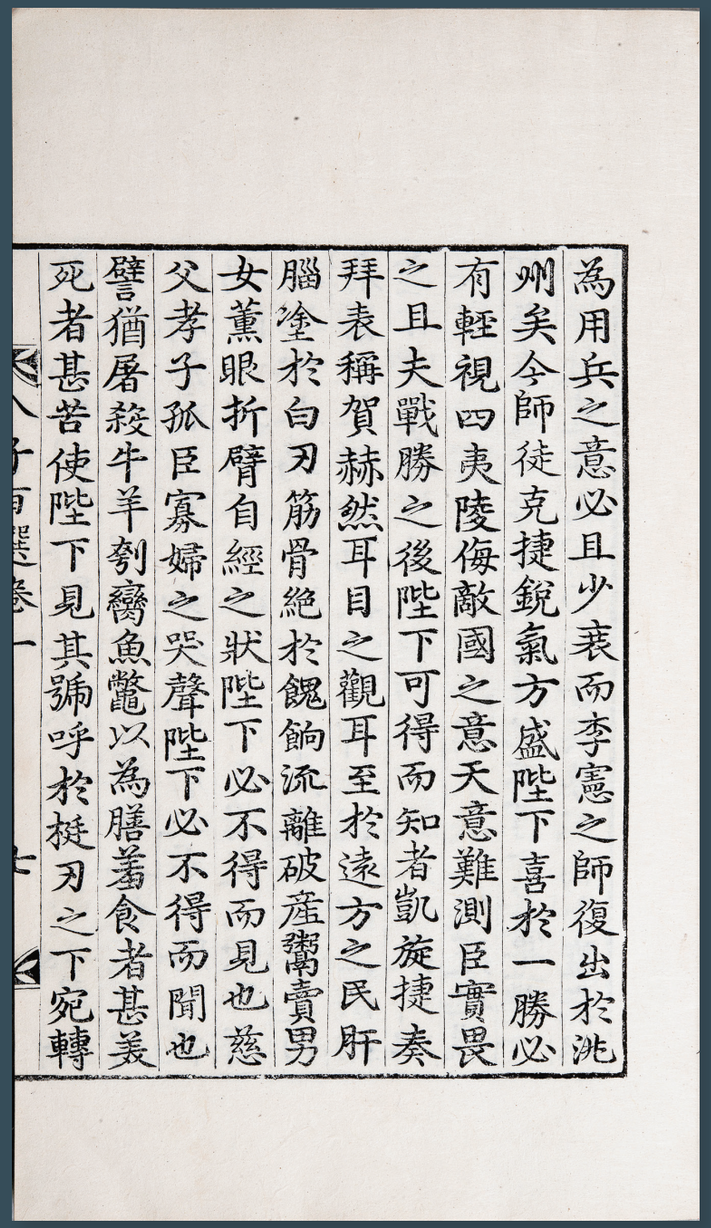
정조 1년1777 평양감사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이 명을 받아 평양에서 갑인자를 여섯 번째로 개주한 육주갑인자六鑄甲寅字를 만들었는데 이를 정유자丁酉字라 한다. 앞서 주조한 오주갑인자 임진자를 없애지 않고 활자를 15만자 더 주조하였는데 정유자의 보관은 내각(후에 주자소)에 따로 두고 사용하였다. 철종 8년1857 주자소의 화재로 정유자는 소실되었다. 정유자본은 임진자본과 함께 대체로 판심에 이엽화문二葉花紋의 어미가 있는 점에서 사주갑인자인 무신자본과 식별되고 있다.

임금이 춘저春邸에 있을 적에 동궁東宮 신료들에게 명하여 갑인자를 교정해서 15만 자를 주조하도록 하여 운각芸閣에 간직해 놓고, 『경서정문經書正文』과 『계몽집전啓蒙集箋』을 인출했었으니, 이것이 임진자壬辰字 3)이다. 1777년에 전 평안 감사 서명응徐命膺에게 명하여 평양감영에서 주조를 개시하되 갑인자를 본本으로 하여 15만 자를 더 주조해서 올리도록 했었으니, 이것이 정유자丁酉字이다.

–『정조실록』 1777년 8월 3일




3) 영조 48년(1772) 정조가 세자로 있을 때에 갑인자를 고쳐 만든 오주갑인자(五鑄甲寅字)로, 15만 자를 새겨 교서관(校書館)에 두었음




1777년 주조한 육주갑인자 정유자로 찍은 『당송팔자백선』

§ 활자크기 : 대1.4 x 1.6 cm, 소1.4 x 0.8 cm

**唐宋八子百選**

正祖 編

金屬活字本(丁酉字), 正祖 5(1781)

6卷3册: 四周單邊 半郭 24.4 x 17.3 cm, 有界, 10行18字, 內向2葉花紋魚尾; 36.2 x 23.6 cm (古朝44–나5–1)

# 병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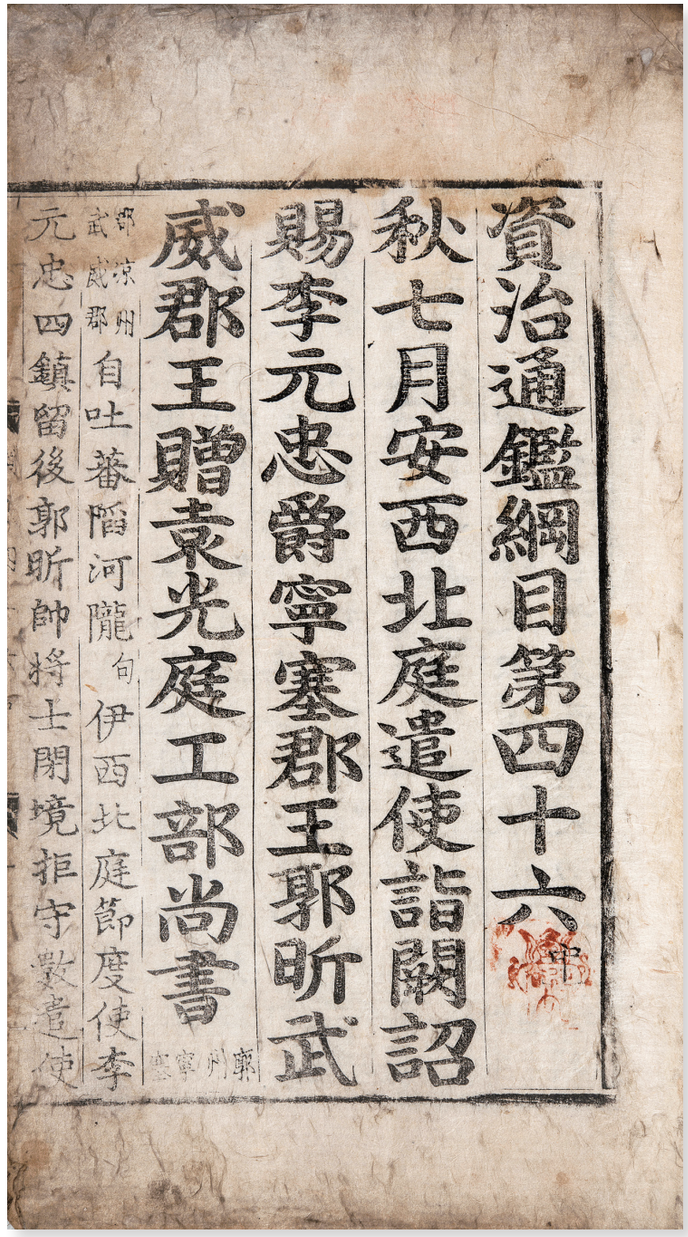
## 자치통감강목

송나라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편찬한 『자치통감』을 주희朱熹가 큰 제목으로 강綱을 따로 세우고 기사는 목目으로 구별하여 엮은 역사서이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자치통감강목』의 열람을 권장하는 한편, 해석이 부족하고 구두점이 명확하지 않아 열람에 불편하다고 판단하여 집현전 문신들에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사건마다 주해註解를 달아 읽기 편하도록 훈의訓義를 만들게 한 것이 이 책이다.
큰 글자는 세종 18년1436 진양대군(후에 세조)의 글씨체를 바탕으로 납을 불려 만든 최초의 연활자鉛活字 병진자丙辰字를 사용하였고, 중소자는 갑인자를 사용하였다.

지난번에 이미 『자치통감資治通鑑』의 훈의訓義를 찬술하였으므로, 또 이 책으로 인하여 『강목』까지 아울러 주해註解하여 후학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니, 너희들은 그것에 힘을 쓰라 하셨다. 3년이 지나서 책이 이루어졌으나, 다만 그 구주舊註는 글자 모양이 조금 작고 조밀하였다. 주상께서 춘추가 높아지시면 보시기가 어려울까 염려하시어, 진양 대군晉陽大君 유로 하여금 큰 글자로 써서 이를 새로 주조鑄造하여 새 글자로써 강綱을 삼고 옛 글자로써 목目을 삼게 하였으며, 또 권질이 무겁고 큰 것은 정리해서 상·중·하로 만들기도 하고 상·하로 만들기도 하여서, 총 1백 49권이었다.

–『세종실록』 1436년 7월 29일

十一月加陳少遊同平章事 范氏曰少遊重斂以求寵此民賊也德宗推其法於天下而以宰相實之安得無顛覆之禍乎
朱滔田悅王武俊李納皆自稱王 田悅德朱滔與王武俊議奉滔爲主臣事之滔不可幽州判官李子千等共議以爲如此則常爲叛臣用兵無名使將吏無所依歸請與鄆州爲四國俱稱王而不改年號鄆州謂李納也


資治通鑑綱目第四十六
秋七月安西北庭遣使詣闕詔
賜李元忠爵寧塞郡王郭昕武
威郡王贈袁光庭工部尚書
鄯州涼州武威郡自吐蕃陷河隴白伊西北庭節度使李
元忠四鎮留後郭昕帥將士閉境拒守數遣使

1436년 최초의 연활자 병진자로 찍은 『자치통감강목』
§ 활자크기 : 2.0 x 3.0 cm

**資治通鑑綱目**

朱熹(宋) 撰; 思政殿 訓義
金屬活字本(小字甲寅字, 大字丙辰字), 世宗 20(1438)
2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6.4 x 17.4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大字5行12字, 上下下向3葉花紋魚尾; 36.6 x 22.4 cm (일산貴221–33)

# 을해자

## 십일가주손자

손무孫武가 편찬한 병법서 『손자孫子』에 역대 주석가들의 설을 모아 종합하여 교감校勘한 책이다.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글씨를 자본으로 세조 원년1455 주조한 동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인출하였다. 이에 앞서 문종 즉위년1450 안평대군의 글씨를 자본으로 경오자庚午字를 주조하였는데 을해자를 주조할 때 녹여 사용되었다. 경오자 주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안평대군이 세조의 왕위찬탈을 반대하다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활자도 폐기된 것으로 여겨진다. 을해자는 글자체가 편평하고 폭이 넓은 원필圓筆 계통이며 선조전기까지 오래 사용되어서 그 인본이 갑인자본 다음으로 많이 전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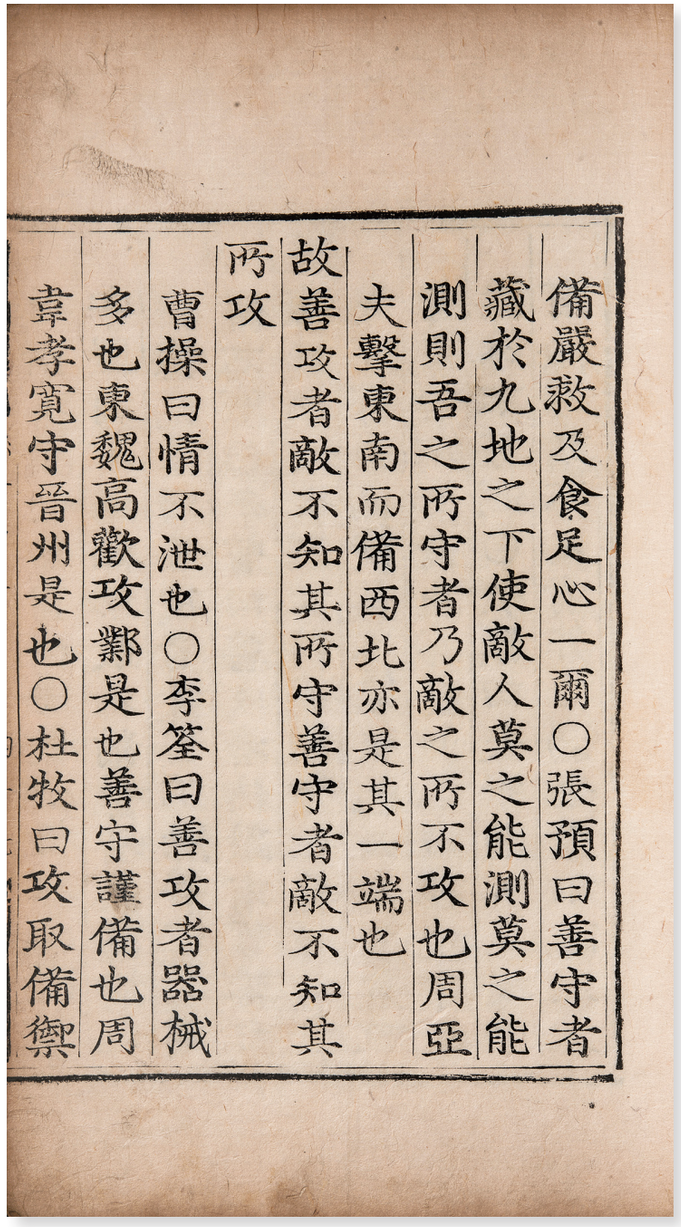
성종이 우부승지 김영견金永堅에게 이르기를, "요즈음 무슨 주자鑄字를 써서 책을 인쇄하는가?"하자, 대답하기를, "갑인1434년, 을해1455년 두 해에 주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쇄는 경오자庚午字보다 좋은 것이 없었는데, 안평대군 이용李瑢이 쓴 것이라 하여 이미 헐어 없애고, 강희안姜希顔에게 명하여 쓰게 해서 주자를 하였으니, 을해자乙亥字가 이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여러 사서史書를 인쇄해서 반포하게 하였다.

– 『성종실록』 1474년 11월 22일

周易傳義卷之二十
庚寧殿 口訣
巽下巽上
巽序卦旅而无所容故受之以巽巽者入也羇旅親疎非巽順何所取容苟能巽順雖旅困之中何往而不能入巽所以次旅也爲卦一陰在二陽之下巽順於陽所以爲巽也


在四已言元吉五唯言稱其位也渙之四五通言者渙以離散爲害拯之使合也非君臣同功合力其能濟乎爻義相須時之宜也一作而已陽剛中正以居尊位當渙之時能散其號令與其居積則可以濟渙而无咎矣故其象占如此九五巽體有號令之象汗謂如汗之出而不反也渙王居如陸贄所謂散小儲而成大儲之意

을해자로 찍은 『주역전의』(일산貴1231–22)


備嚴救及食足心一爾○張預曰善守者藏於九地之下使敵人莫之能測莫之能測則吾之所守者乃敵之所不攻也周亞夫擊東南而備西北亦是其一端也故善攻者敵不知其所守善守者敵不知其所攻
曹操曰情不泄也○李筌曰善攻者器械多也東魏高歡攻鄴是也善守謹備也周韋孝寬守晉州是也○杜牧曰攻取備禦

1455년 주조한 을해자로 찍은 『십일가주손자』
§ 활자크기 : 중1.2 x 1.6 cm, 소1.2 x 0.8 cm

### 十一家註孫子

孫武(周) 撰; 吉天保(宋) 集註
金屬活字本(乙亥字), 宣祖 10(1577)
74張: 四周雙邊 半郭 22.7 x 15.1 cm, 有界, 9行17字, 大黑口, 內向3葉花紋魚尾; 32.7 x 20.7 cm (古69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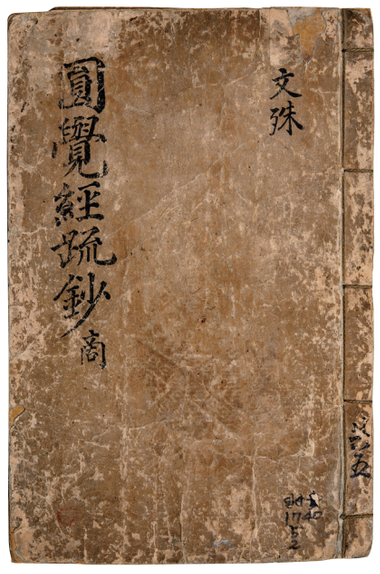
# 을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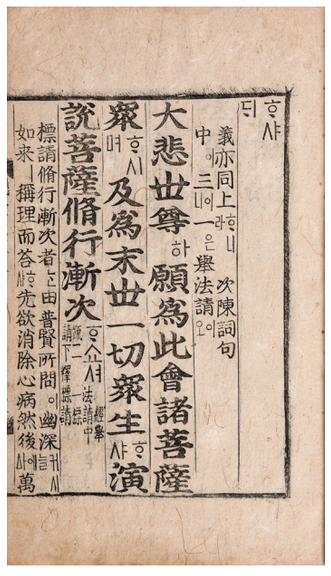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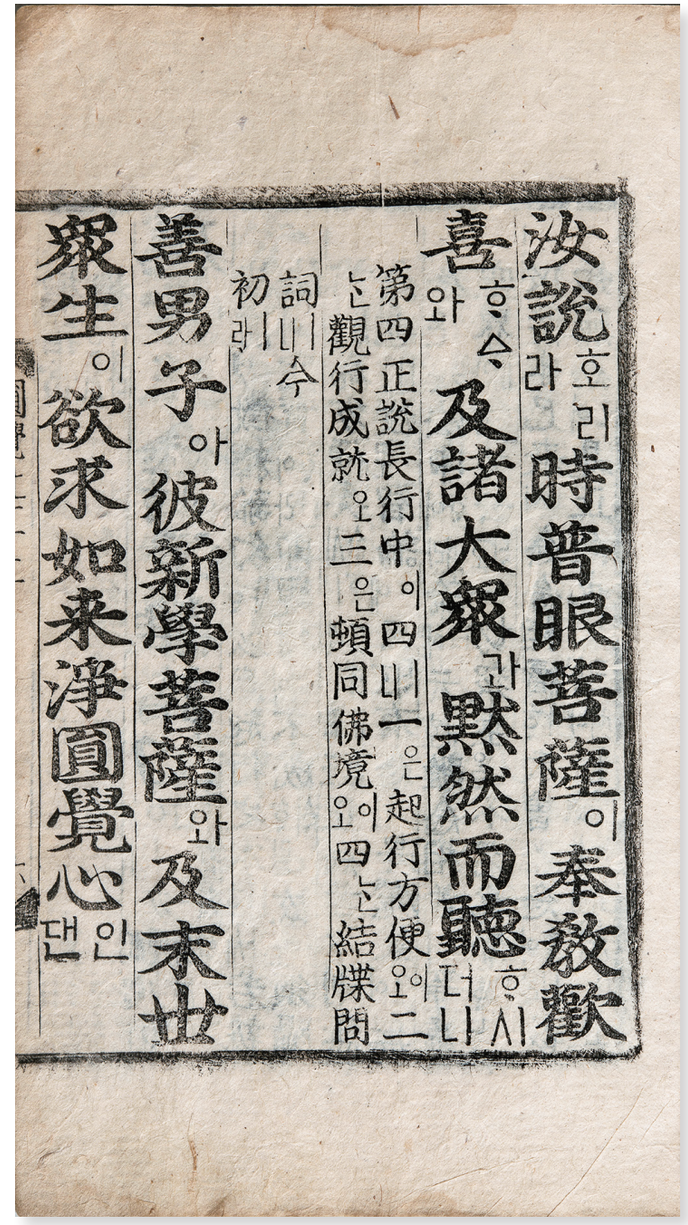
종밀의 『원각경소초』를 신미信眉 등이 세조의 명을 받아 을유자乙酉字로 편찬한 불경이다.
세조는 현재 종로구 탑골공원 자리에 원각사圓覺寺를 준공하고 세조 11년1465 정난종鄭蘭宗, 1433–1489의 글씨를 자본으로 원각경을 간행하고자 을유자를 주조하였다. 아울러 구결口訣을 달기 위해 한글 활자도 주성하였다. 글자체는 정난종이 쓴 송설체인데 해정하지 않아 인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래 불경을 찍기 위해 만든 활자이기 때문에 유신들이 쓰기를 꺼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겨우 20년만 사용한 후 성종 15년1484에 이 활자를 녹여 갑진자甲辰字를 주조했기 때문에 을유자의 전래본은 많지 않다.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세조의 숙부가 일찍이 『원각경圓覺經』을 수교讎校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일을 마치었다. 임금세조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 『세조실록』 1465년 3월 9일




1465년 주조한 을유자로 찍은 원각경

§ 활자크기 : 대1.5 x 2.1 cm, 중1.0 x 1.0 cm, 소1.0 x 0.5 cm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佛陀多羅 譯; 宗密 疏鈔; 信眉 等受命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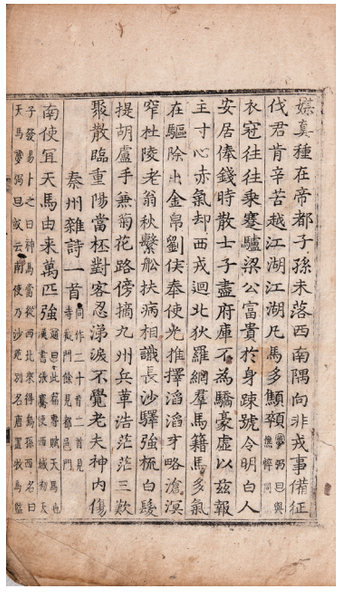
金屬活字本(乙酉字), 世祖 11(1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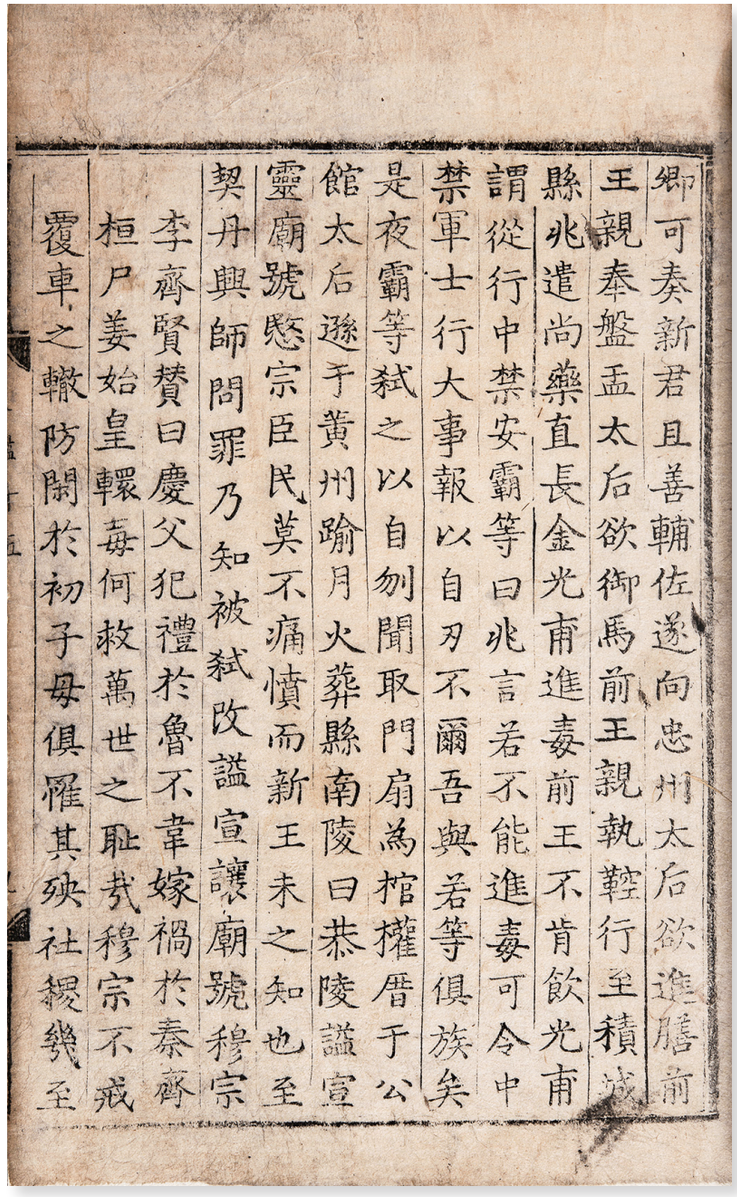
4冊: 四周單邊 半郭 19.4 x 13.4 cm, 有界, 12行19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38.2 x 18.6 cm (일산貴1740–5)

# 갑진자

## 찬주분류두시

'주석을 모으고 주제별로 나눈 두보의 시'라는 뜻으로 서명을 지은 당나라 두보杜甫, 712–770의 시집이다.
당시 주로 사용한 갑인자와 을해자의 글자체가 커서 종이가 많이 들고 오랜 사용으로 깨끗하지 못하여 성종 15년1484 종래의 활자보다 작고 해정한 갑진자甲辰字를 주조하였다. 대내大內에 소장하고 있던 『구양공집歐陽公集』과 『열녀전烈女傳』 그리고 부족자는 박경朴耕에게 쓰게 하여 자본으로 삼아 30여 만자를 완성시켰다.
활자의 크기가 종래의 다른 활자에 비하여 아주 작으면서도 모양이 해정楷正하고 예쁘지만 활자가 작고 획이 가늘어 쉽게 마멸되고 인쇄가 깨끗하지 못하다.
갑진자는 갑인자, 을해자 다음으로 오래 사용되었다.





1484년 주조한 갑진자로 찍은 『찬주분류두시』
§ 활자크기 : 중1.0 x 1.0 cm, 소0.5 x 0.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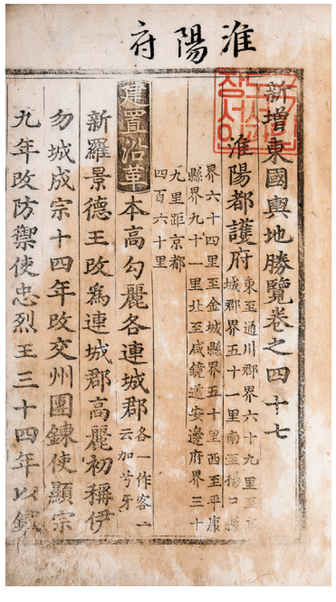
**纂註分類杜詩**

杜甫 著
金屬活字本(甲辰字)
2冊: 四周雙邊 半郭 21.0 x 14.4 cm, 有界, 12行19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29.0 x 18.3 cm (의산古3717–126)

## 계축자

### 신증동국여지승람

노사신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을 중종 25년1530에 이행李荇 등이 새로 증수하여 편찬한 관찬지리서이다.
앞서 주조한 갑진자의 글자가 너무 작고 획이 가늘어 쉽게 마멸되므로 성종 24년1493 굵고 큰 활자인 계축자癸丑字를 주성하였다.
해정한 글자체이나 주조의 세련도는 갑진자에 비해 떨어지며 그 전래본이 극히 드물다.



1493년 주조한 계축자로 찍은 『신증동국여지승람』
§ 활자크기 : 대1.6 x 2.0 cm, 소1.6 x 1.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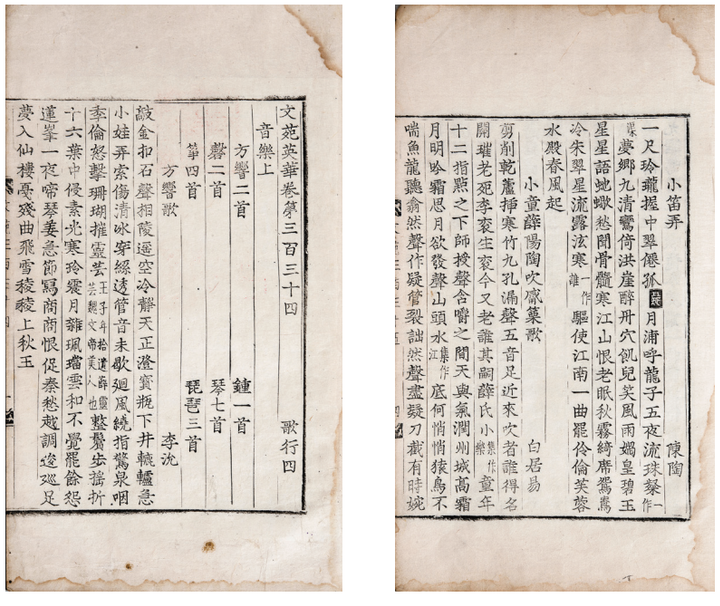
**新增東國輿地勝覽**

李荇 等 受命編
金屬活字本(癸丑字), 中宗 25(1530)
39張: 四周雙邊 半郭 27.0 x 17.0 cm, 有界, 8行18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35.7 x 21.6 cm (일산貴22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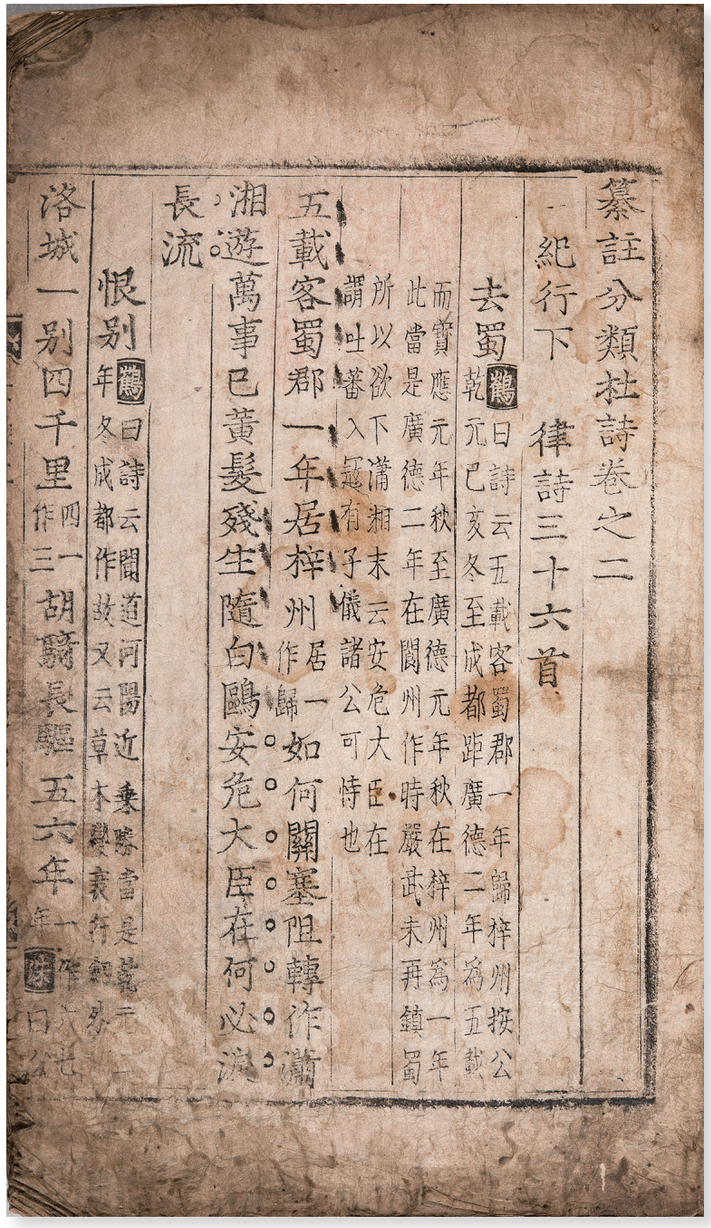
# 병자자

## 찬주분류두시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역대 제가의 주석을 모아로 편찬한 책이다.
중종 11년1516 주자도감鑄字都監이 설치되고 가늘고 긴 자양을 바탕으로 한 병자자丙子字의 주조를 진행하였다. 그 해 가뭄이 심하여 주자도감이 혁파되었고, 중종 14년1519 서사書肆의 설치를 목적으로 활자를 더 주조하게 된다. 이 때 주조한 활자를 기묘자己卯字라 일컫기도 하고, 병자자의 보주補鑄로 같은 계통의 글자체로 보기도 한다. 이 전시에서는 『한국서지학』에 의거하여 병자자로 통칭하였다. 활자의 모양은 조선 두 번째 활자인 경자자庚子字와 비슷하지만 글자체의 박력이 경자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병자자는 갑인자, 을해자, 갑진자 다음으로 오래 쓰여 임진왜란 직전까지 70여 년간 사용되었다.



병자자로 찍은 『문원영화』(일산貴3745–37)



1516년 주조한 병자자로 찍은 『찬주분류두시』
§ 활자크기 : 중1.1 x 1.2 cm, 소0.8 x 0.6 cm

**纂註分類杜詩**

杜甫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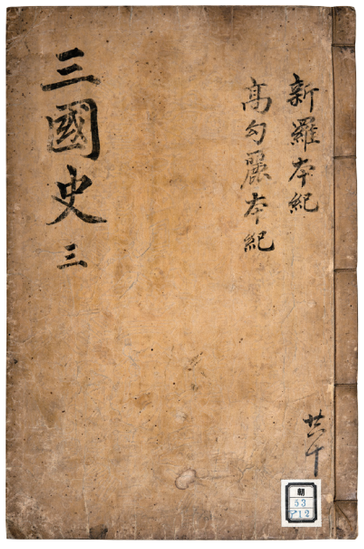
金屬活字本(丙子字), 中宗 18(1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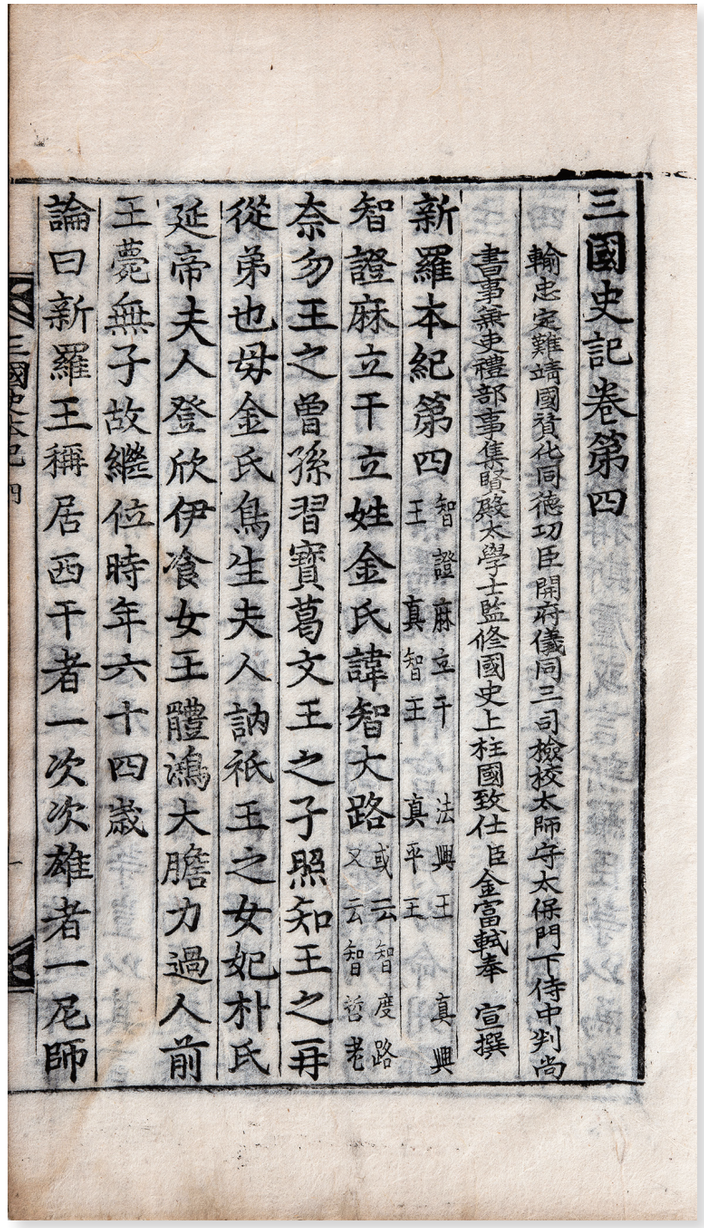
51張: 四周雙邊 半郭 22.6 x 15.2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30.5 x 19.0 cm (일산貴3717–60)

## 삼국사기

고려 때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정치, 사회의 흥망을 위주로 엮어 기술한 역사서이다.

숙종 3년1677 『현종실록顯宗實錄』을 인출하기 위하여 낙동계洛東契라는 민간 단체에서 사용하던 활자를 구득하고 여기에 새로 주조한 활자를 섞어 현종실록자顯宗實錄字라 하였다. 현종실록자는 본래 주조의 솜씨가 정교롭지 못한 편이나 글자체가 해정하여 역대 실록을 비롯하여 열성어제列聖御製 등 많은 책을 찍어내는 데 사용되었다. 이 활자는 철종원년1850에 개주改鑄되었는데 이 때의 활자는 주조가 세련되어 그 인본이 매우 정교하다.






1677년 주조한 현종실록자로 찍은 『삼국사기』

§ 활자크기 : 대1.3 x 1.4 cm, 소0.8 x 0.7 cm

**三國史記**

金富軾 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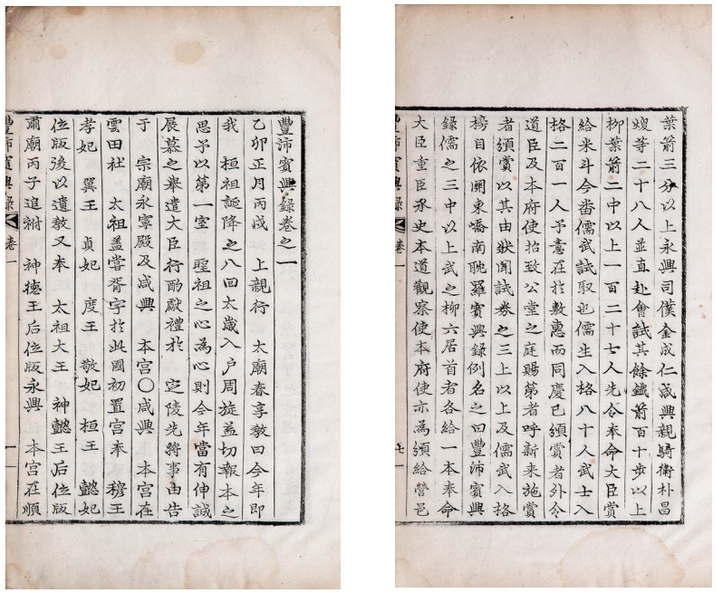
金屬活字本(顯宗實錄字)

10册: 四周單邊 半郭 22.9 x 15.3 cm, 有界, 10行18字, 內向2葉花紋魚尾; 30.8 x 20.2 cm (古朝53–가12)

# 한구자

## 행군수지

조선중기 병조판서였던 김석주金錫胄, 1634–1684가 병력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쓴 책이다.
김석주는 무신자사주갑인자, 1618주조의 주조를 주관했던 김좌명의 아들로 숙종 3년1677 당대 명필가 한구韓構, 1636–?의 독특하고 매력 있는 작은 필서체 글씨를 바탕으로 사사로이 주조하여 한구자韓構字로 이름하였다. 정조 6년1782 개주한 것은 재주한구자再鑄韓構字 또는 임인자壬寅字로, 철종 9년1858 주조한 것은 삼주한구자三鑄韓構字로 일컫고 있다.
한구자는 조선 사람의 글씨를 자본으로 주조한 몇 안되는 활자로 자체가 아름다운 소형 활자로 알려져 있다.



1782년 재주한구자로 찍은『풍패빈흥록』(일산古3649–17)

1677년 주조한 한구자로 찍은『행군수지』
§ 활자크기 : 대1.0 x 1.0 cm, 소0.9 x 0.5 cm

### 行軍須知

金錫胄 編
金屬活字本(韓構字), 肅宗 5(1679)
2卷1册: 四周雙邊 半郭 20.5 x 13.0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3葉花紋魚尾; 26.4 x 16.6 cm (일산古692–24)

# 교서관인서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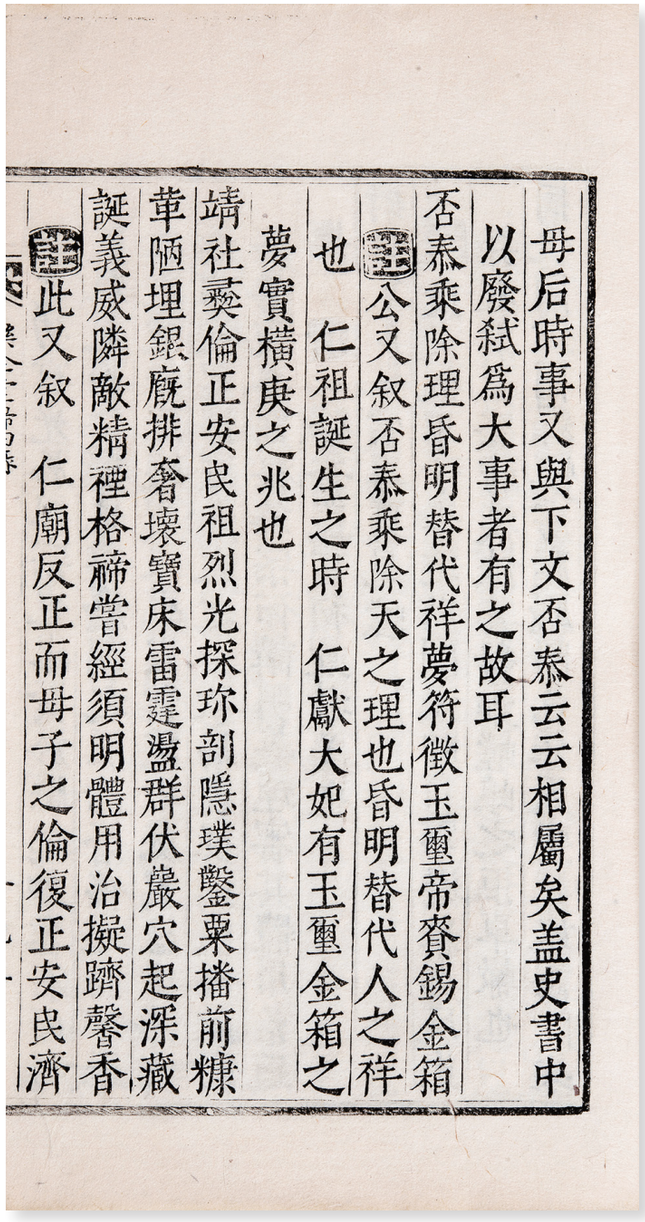
## 낙전선생귀전록

조선중기 문신 낙전당樂全堂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향리에 퇴거한 이후에 지은 시들을 그의 외손인 김석주金錫胄가 모아 간행한 것이다.

숙종 10년1684 교서관校書館에서 명나라의 인서체印書體 자본을 바탕으로 철활자鐵活字로 만든 활자가 교서관인서체자校書館印書體字이며, 운각인서체자라고도 한다. 재료가 무쇠이기 때문에 활자 획이 좀 굵고 글자 모양이 정연치 않으며 만든 솜씨도 거친 편이다.

경종 3년1723 다시 주조한 활자는 후기교서관인서체자後期校書館印書體字로 일컫고 있는데, 전기에 비해 글자체가 정연한 편이고 가로 획이 가늘어져 인서체다운 모양이 갖추어졌다.

1723년 주조한 후기교서관인서체자로 찍은『약천집』(古朝46-가921)



1684년 주조한 교서관인서체자로 찍은『낙전선생귀전록』

§ 활자크기 : 대1.0 x 1.2 cm, 소1.0 x 0.6 cm

**樂全先生歸田錄**

申翊聖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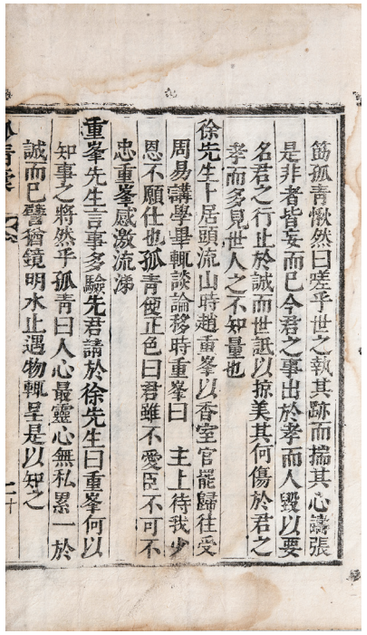
金屬活字本(校書館印書體字本), 肅宗 10(1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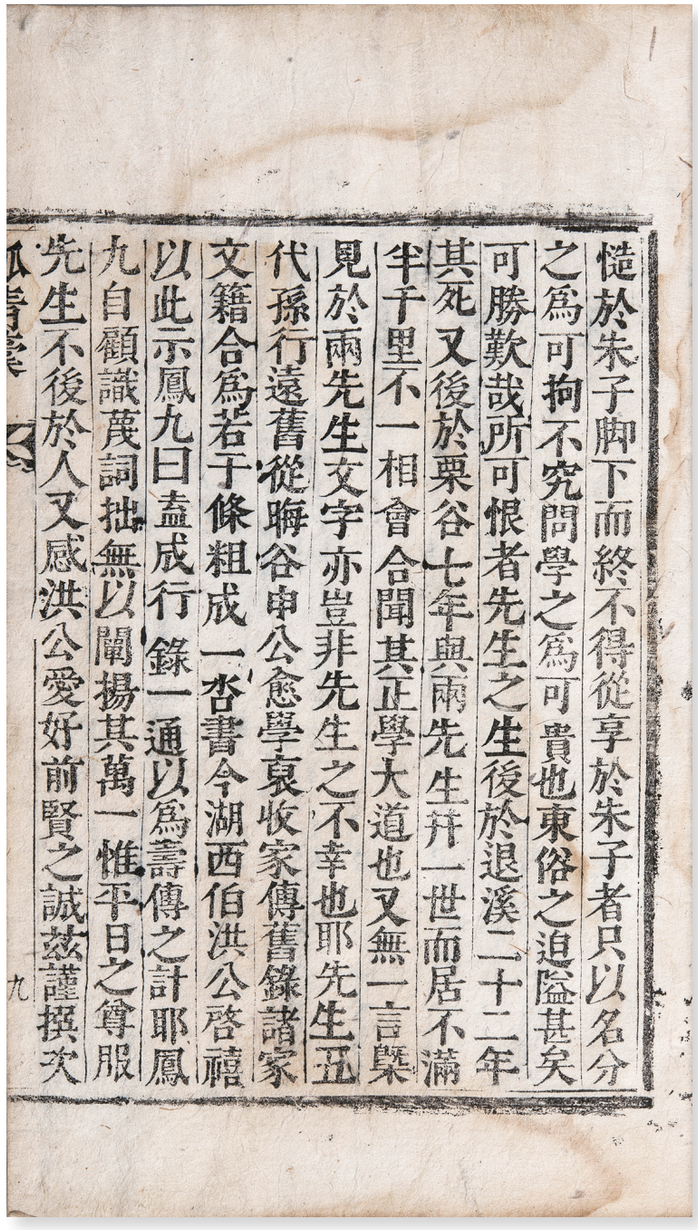
56張: 四周雙邊 半郭 21.3 x 13 cm, 有界, 10行20字, 上3葉花紋魚尾; 28.1 x 16.7 cm (일산古3644-522)

# 율곡전서자

## 고청선생유고

조선 중기 문인 고청孤靑 서기徐起, 1523–1591의 시문집으로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간행하였다.
홍계희는 『율곡선생전서』를 인출하기 위해 영조 25년1749 사사로이 활자를 주조하였다. 중국 서체의 영향을 받은 고딕 인서체로 율곡전서자栗谷全書字라 일컫는다. 활자의 재료는 무쇠인 것으로 여겨지며 개인이 주조했기 때문에 기술이 미숙하여 먹의 농박濃薄차이가 심해서 인쇄상태가 조잡하다.
율곡전서자 종래의 활자체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강희자전』의 글자체를 닮게 쓴 고딕 인서체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筋孤靑慨然曰嗟乎世之執其跡而揣其心譎張
是非者皆妄而已今君之事出於孝而人毁以要
名君之行止於誠而世詆以掠美其何傷於君之
孝而多見世人之不知量也
徐先生卜居頭流山時趙重峯以香室官罷歸往受
周易講學畢輒談論移時重峯曰 主上待我少
恩不願仕也孤靑俛正色曰君雖不愛臣不可不
忠重峯感激流涕
重峯先生言事多驗先君請於徐先生曰重峯何以
知事之將然乎孤靑曰人心最靈心無私累一於
誠而已譬猶鏡明水止遇物輒呈是以知之


慥於朱子脚下而終不得從享於朱子者只以名分
之爲可拘不究問學之爲可貴也東俗之迫隘甚矣
可勝歎哉所可恨者先生之生後於退溪二十二年
其死又後於栗谷七年與兩先生并一世而居不滿
半千里不一相會合聞其正學大道也又無一言槩
見於兩先生文字亦豈非先生之不幸也耶先生五
代孫行遠舊從晦谷申公愈學裒收家傳舊錄諸家
文籍合爲若干條粗成一冊書令湖西伯洪公啓禧
以此示鳳九曰盍成行錄一通以爲壽傳之計耶鳳
九自顧識蔑詞拙無以闡揚其萬一惟平日之尊服
先生不後於人又感洪公愛好前賢之誠茲謹撰次

1749년 주조한 율곡전서자로 찍은 『고청선생유고』
§ 활자크기 : 대1.1 x 1.3 cm, 소0.7 x 0.7 cm

**孤靑先生遺稾**

徐起 著
金屬活字本(栗谷全書字), 公州: 忠淸監營, 英祖 26(1750)
26張: 四周雙邊 半郭 22.5 x 15.5 cm, 有界, 11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31.0 x 19.7 cm (古3648–33–4)

# 정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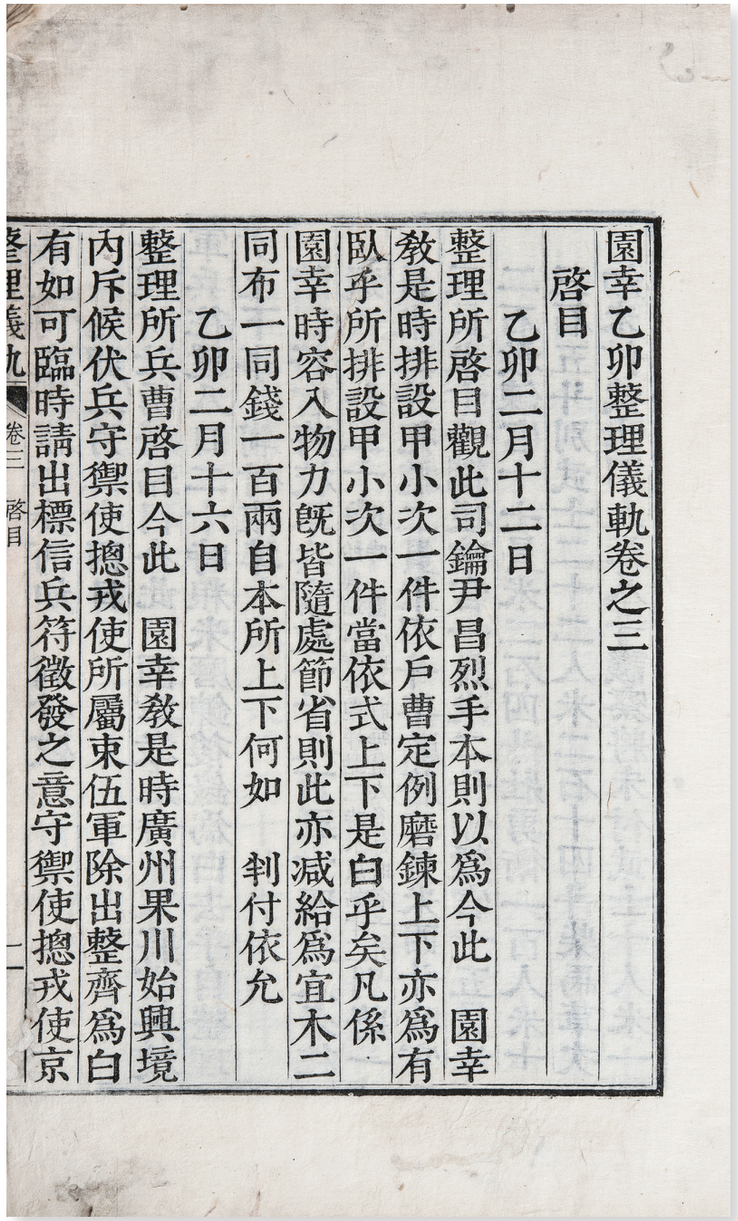
## 원행을묘정리의궤

정조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능이 있는 현륭원顯隆園에 행차했을 때의 의례 절차 일체를 정리하여 기록한 책이다.
중국의 서체를 바탕으로 만든 목활자 생생자生生字를 자본으로 하여 정조 19년1795 큰 자 16만 자와 작은 자 14만자를 주조한 동활자가 정리자整理字이다. 글자체가 넓적하고 글자 획인 굵은 인서체로 정교하고 해정하다. 철종 9년1858 다시 주조한 활자는 재주정리자再鑄整理字라 한다. 글자체가 보기 좋고 크기가 적당하여 대한제국 말기에 이르기까지 학부교과서, 법령, 관보 등 정부인쇄물에 주로 사용되었다.

정리주자整理鑄字가 완성되었다. 전교하기를,
"(중략) 임자년에 명하여 중국의 사고전서四庫全書 취진판식聚珍板式을 모방하여 자전字典의 자본을 취해서 황양목黃楊木을 사용한 글자 32만여 자를 새기어 '생생자生生字'라고 이름하였다. 을묘년1795에는 『정리의궤整理儀軌』 및 『원행정례園幸定例』 등의 책을 편찬하기 위해 생생자를 자본을 삼아서 구리로 활자를 주조하게 하여 크고 작은 것이 모두 30여 만 자였는데 이를 정리자整理字라 하였다."

– 『정조실록』 1796년 3월 17일

衛如常司僕寺正進輦於閤外出宮時至尙儀跪啓中嚴
少頃又啓外辦 王大妃殿乘輦以出鼓吹振作繖扇侍衛如
常儀至弘化門外侍衛百官鞠躬過則平身以次侍衛至
景慕宮祇迎如常先詣百官 由正門以入尙宮以下大門外下馬步從
王大妃殿入大次奠酌禮時至行禮如儀行奠酌禮儀訖還大次
還宮時至侍衛百官出就洞口外尙儀跪啓中嚴少頃又
啓外辦 王大妃殿乘輦以出至大門外鼓吹振作侍衛百官
鞠躬過則平身以次侍衛還宮并如來儀
惠慶宮詣 景慕宮行禮時出還宮儀
前期掖庭署設大次於 景慕宮齋殿內其日兵曹陳仗
衛如常司僕寺官進輦於閤外出宮時至尙儀跪賛請內
嚴少頃又白外備 惠慶宮乘輦以出鼓吹振作繖扇陪衛如


園幸乙卯整理儀軌卷之三
啓目
乙卯二月十二日
整理所啓目觀此司鑰尹昌烈手本則以爲今此 園幸
教是時排設甲小次一件依戶曹定例磨鍊上下亦爲有
臥乎所排設甲小次一件當依式上下是白乎矣凡係
園幸時容入物力旣皆隨處節省則此亦減給爲宜木二
同布一同錢一百兩自本所上下何如 判付依允
乙卯二月十六日
整理所兵曹啓目今此 園幸教是時廣州果川始興境
內斥候伏兵守禦使摠戎使所屬東伍軍除出整齊爲白
有如可臨時請出標信兵符徵發之意守禦使摠戎使京
整理儀軌 卷三 啓目 一

1795년 주조한 정리자로 찍은 『원행을묘정리의궤』
§ 활자크기 : 대1.1 x 1.4 cm, 소0.7 x 0.7 cm

**園幸乙卯整理儀軌**

正祖 命編
金屬活字本(整理字), 正祖 20(1796)
7冊(缺帙): 插圖, 四周雙邊 半郭 24.9 x 16.7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34.4 x 22.1 cm (일산古159-21)

# 정리자체철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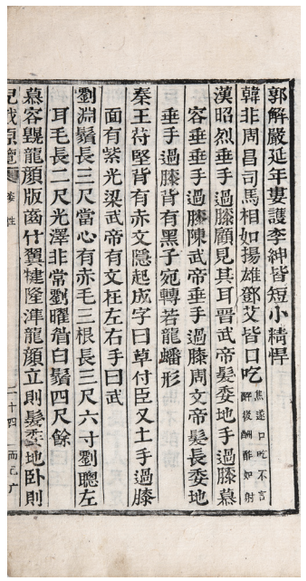
## 아희원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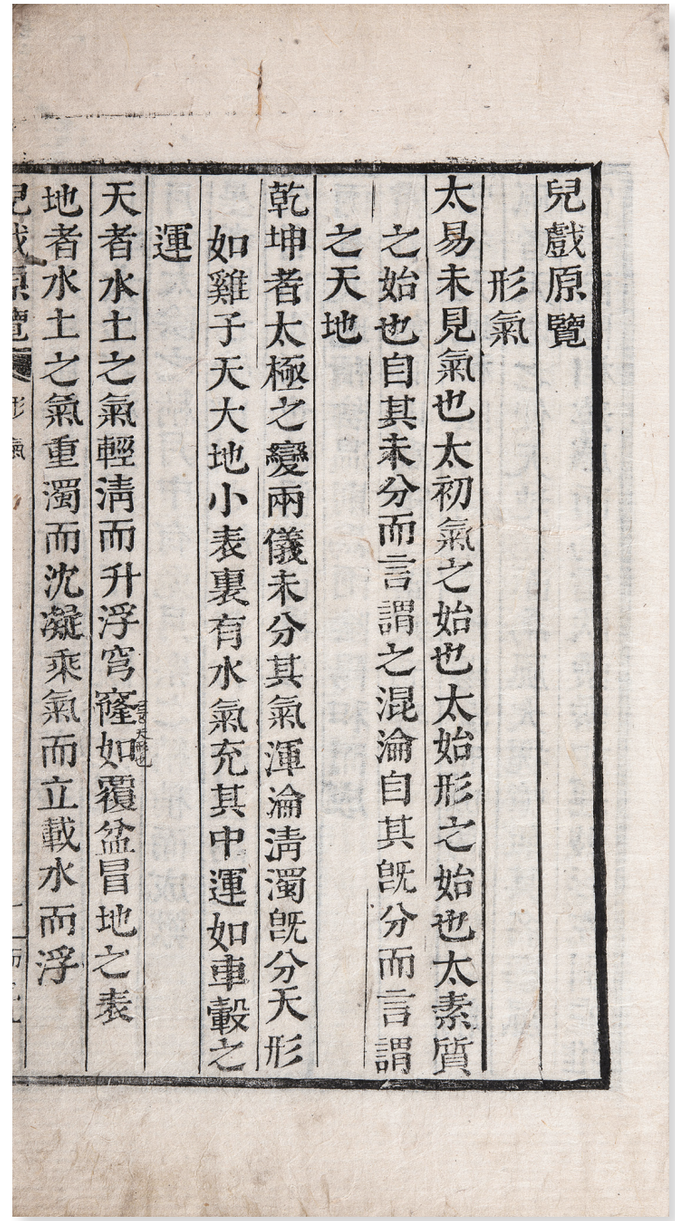
장혼張混, 1759–1828이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참고하기 위해 역대 문장을 뽑아 금속활자로 간행한 아동교육용 도서이다.

정조말기1798년경 민간에서 정리자를 닮게 만든 철활자가 있었는데 주조에 대한 기록이 없어 글자체와 재료를 따서 정리자체철활자整理字體鐵活字라 하였다. 주조술이 나라의 주자소에서 부어낸 것과는 달라 활자의 모양이 고르지 않고 솜씨가 거칠고 조잡한 편이다.

이 활자는 순조조 이후 대한제국 말기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호남 지방 등에서 문집, 족보, 훈몽서, 효행록 등 다양한 책을 찍어냈다. 유생, 문인, 후손 등 여러 단체들이 인쇄비용을 공동 염출하고 마련하여 민간 인쇄업자에게 의뢰하면 인쇄도구를 싣고 옮겨 다니면서 삯을 받고 책을 찍어주었다. 그 중에는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단체 또는 인쇄한 곳의 활인으로 표시해준 것도 있다.

정리자체철활자는 뒤에 나오는 필서체철활자와 더불어 민간인쇄를 촉진시킨 점에서 인쇄문화사상 의의가 크다.




정리자와 닮은 철활자로 찍은『아희원람』

§ 활자크기 : 대1.1 x 1.4 cm, 소0.7 x 0.7 cm

**兒戲原覽**

張混 編

金屬活字本(整理字體鐵活字), 純祖 3(1803)

1冊(64張): 四周單邊 半郭 23.0 x 14.9 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31.4 x 19.1 cm (일산古03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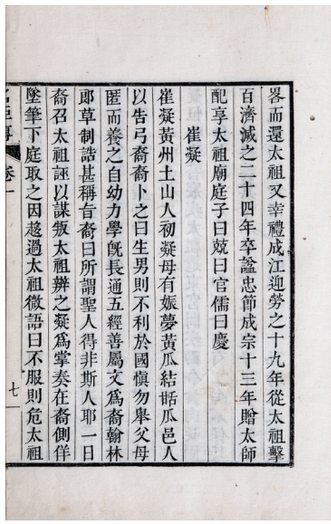
# 전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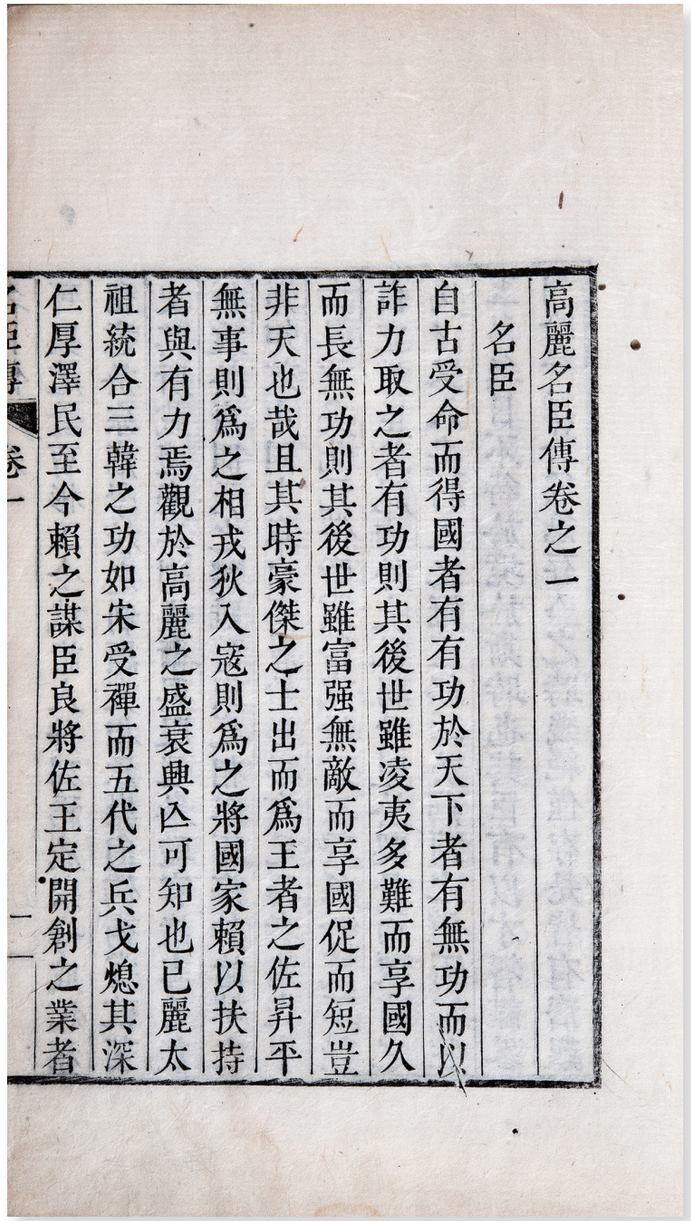
## 고려명신전

고려시대 강감찬, 이규보, 이색, 정몽주 등 저명 인물에 대한 전기를 추려 엮은 책이다.
순조의 외삼촌 박종경朴宗慶, 1765–1817이 순조 16년1816 청나라 판본인 『전사全史』의 글자를 바탕으로 20만 자를 주조하였는데, 이 인서체 동활자를 전사자全史字라 한다. 박종경은 왕실 외척으로 부친과 친지의 저술을 간행하고 세도를 부리고자 전사자를 주성하였지만 후대에는 다양한 민간서적을 찍어 보급하면서 기여한 바가 크다.
전사자는 활자모양이 신연활자와 같이 균정하고 크기도 적당하며 주조가 정교하여 민간에서 널리 애용되었기 때문에 문집, 역사서, 천문서 등 그 전래본이 많이 남아있다.

몇 해 동안에 다행히도 물재物財를 모아 당본唐本의 활자를 바탕으로 20만 자를 주조하여 처음으로 [전사자를] 인쇄하려 한다.

– 『돈암집』 권6




1816년경 주조한 전사자로 찍은 『고려명신전』
§ 활자크기 : 대1.0 x 1.0 cm, 소1.0 x 0.5 cm

**高麗名臣傳**

南公轍 編
金屬活字本(全史字), 純祖 22(1822)
12卷6册: 四周單邊, 半郭 21.5 x 14.7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黑魚尾; 32.6 x 21.0 cm (일산古2513–36)

# 필서체철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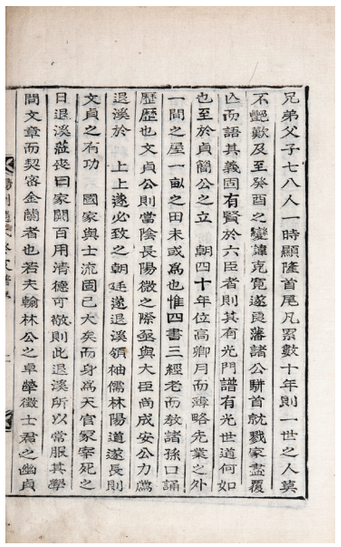
## 양주조씨족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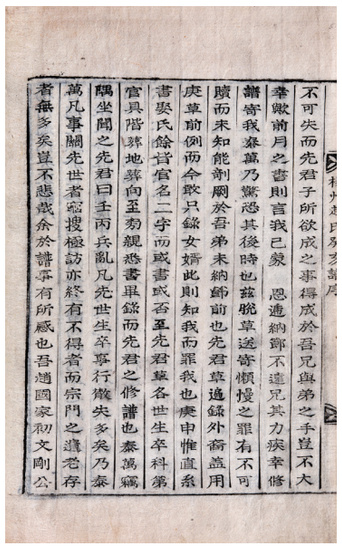
양주 조씨楊洲趙氏의 족보이다.

순조 연간에 민간이 주조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해 오던 활자에 사자원寫者員의 필서체를 바탕으로 주조한 철활자가 있었다. 주조에 대한 기록이 없어 글자체와 재료를 따서 필서체철활자筆書體鐵活字라 하였다. 글자 획이 가늘고 둥글며 크기는 정리자체철활자에 비해 작게 만들었다.

순조조부터 고종조까지 주로 민간의 문집, 족보, 실기實記 등을 찍어내는 데 이용되었고, 『선원속보璿源續普』의 인출에도 활용되었다.

이 활자는 정리자체철활자와 더불어 19세기 이후 민간인쇄를 촉진시켜 서민문화의 계몽과 진작에 기여한 점에서 인쇄문화사상 의의가 크다.





楊州趙氏癸亥譜序

吾趙之顯於世今蓋四百有餘年譜尚無焉今之所可考信者惟議政公挺萬曆庚申草而已而其記觀正公外孫乃曰只出舊譜則所謂舊譜之某時某公修又刋而行之與否卷幾何今不可攷伯父掌令公既先修諸外先十世之圖仍留意吾譜不幸早世今所傳獨十世圖而已先君參議公盡心譜事而又當庚申周甲則六十年來所記漸繁編輯數年事未半而又不幸早世泰萬承諸兄之意乃紹述舊業必欲有成者今已二十餘年而顧疾病在身有所不遑也余弟泰億大年之爲嶺南觀察也自前年去時見則言譜事書亦言譜事每曰官事不可知時

楊州趙氏癸亥譜序

不可失而先君子所欲成之事得成於吾兄與弟之手豈不大幸歟前月之書則言我已衰 恩遞納鄉不違兄其力疾幸修譜寄我泰萬乃驚悉其後時也茲脫草遂寄懶慢之罪有不可贖而未知能剞劂於吾弟未納鄉前也先君草遺錄外裔盖用庚草前例而今歟只錄女壻此則知我而罪我也庚申惟直系書娶氏餘皆官名二字而或書或否至先君草各世生卒科第官具階葬地葬向至勞親悉書畢錄而先君之修譜也泰萬竊觸坐聞之先君曰壬丙兵亂凡先世生卒事行徵失多矣乃泰萬凡事關先世者竊搜極訪亦終有不得者而宗門之遺老存者無多矣豈不悲哉余於譜事有所感也吾遭國家初文剛公兄弟父子七八人一時顯隆首尾凡累數十年則一世之人莫不艷歎及至癸酉之變諱克寬遂長藩諸公聯首就戮家壹覆亡而語其義固有賢於六臣者則其有光門譜有光世道何如也至於貞簡公之立 朝四十年位高卿月而辭略先業之外一間之屋一畝之田未或爲也惟四書三經老而教諸孫口誦歷歷也文貞公則當陰長陽微之際亟與大臣商成安公力爲退溪於 上上遽必致之朝廷遂退溪領袖儒林陽道遂長則文貞之有功 國家與士流固已大矣而身爲天官冢宰死之日退溪蓋喪曰家聞百用清德可敬則此退溪所以常服其學問文章而契密金關者也若夫輸林公之卓犖微士君之幽貞

필서체철활자로 찍은 『양주조씨족보』

§ 활자크기 : 대1.0 x 1.2 cm, 소1.0 x 0.6 cm

楊州趙氏族譜

趙貞喆 編

金屬活字本(筆書體鐵活字本), 純祖 25(1825)

7卷7册; 34.7 x 22.9 cm (일산古2518-72-2)

# 신연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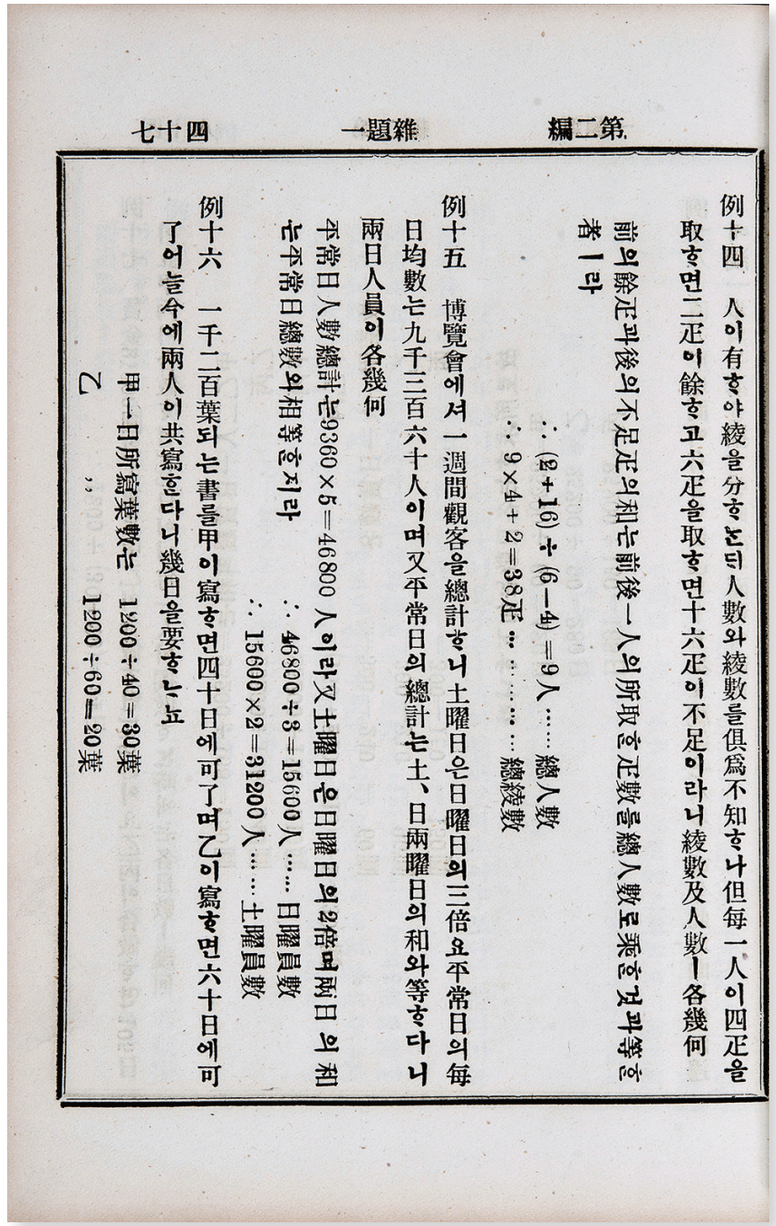
## 산술신서

이상설李相卨, 1870–1917이 편찬한 산수 교과서로 일본인이 지은 『근세산술近世算術』을 번역하여 편집한 것이다.
우리나라 금속활자 인쇄술은 서양보다 2세기나 앞서면서도 다른 나라와의 교류 없이 독자적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발전을 보지 못했다. 그 결과 근대에 접어들어 신연활자新鉛活字 인쇄술을 외국에서 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책의 신연활자 인쇄는 고종 17년1880 일본 요코하마에서 천주교인인 최지혁崔智爀의 글씨를 바탕으로 한글활자를 주조하여 찍은 『한불자전韓佛字典』이 그 효시이다. 정부에서는 고종 20년1883 통리아문統理衙門에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하고 신연활자를 일본에서 도입하여 『한성순보』를 찍어 발행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근대 인쇄의 시작이다. 이듬해 광인사廣印社라는 출판사 겸 인쇄소가 신연활자 인쇄 시설을 갖추고 책을 찍어내기 시작하여 점차로 근대 인쇄가 확장되었다.

漢城旬報
自第一號 全第六號 一

1883년 도입한 신연활자로 찍은 『한성순보』(古0800-1)




第二編　雜題一　四十七

例十四　人이有ㅎ야綾을分ㅎ오ㄴ人數와綾數를俱爲不知ㅎ나但每一人이四疋을取ㅎ면二疋이餘ㅎ고六疋을取ㅎ면十六疋이不足이라니綾數及人數ㅣ各幾何

前의餘疋과後의不足疋의和는前後一人의所取ㅎ는疋數를總人數로乘ㅎ는것과等ㅎ者ㅣ라

∴ (2+16) ÷ (6−4) = 9人 …… 總人數
∴ 9×4 + 2 = 38疋 …… 總綾數

例十五　博覽會에서一週間觀客을總計ㅎ니土曜日은日曜日의三倍요平常日의每日均數는九千三百六十人이며又平常日의總計는土、日兩曜日의和와等ㅎ다니兩日人員이各幾何

平常日人數總計는9360×5=46800人이라又土曜日은日曜日의倍며兩日의和는平常日總數와相等ㅎ지라　∴ 46800÷3=15600人 …… 日曜員數
∴ 15600×2=31200人 …… 土曜員數

例十六　一千二百葉되는書를甲이寫ㅎ면四十日에可了ㅎ며乙이는今에兩人이共寫ㅎ면다니幾日을要ㅎ나뇨

甲一日所寫葉數는　1200÷40=30葉
乙　〃　1200÷60=20葉

신연활자로 찍은 『산술신서』
§ 활자크기 : 0.4 x 0.7 cm

### 算術新書

李相卨 編
金屬活字本(新鉛活字), 光武 4(1900)
2冊; 23.5 x 16.7 cm (일산古7100–46)

# 전시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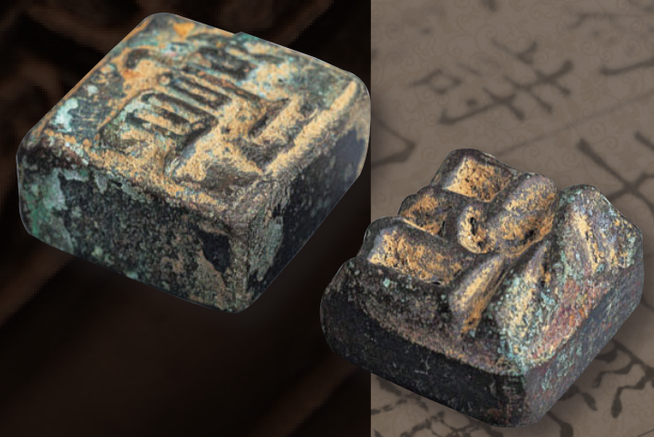
| No | 서 명 | 편저자명 | 판종 | 발행년 | 책수 | 청구기호 |
|---|---|---|---|---|---|---|
| 1 | 南明泉和尙頌證道歌 | 法泉 著 | 木板本<br>(證道歌字飜刻) | 高麗高宗 26<br>(1239) | 1 | 일산貴1784–5 |
| 2 |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br>心體要節 | 景閑 撰 | 興德寺字 | 高麗禑王 3<br>(1377) | 1 | 古1786–38 |
| 3 | 十七史纂古今通要 | 胡庭芳 纂 | 癸未字 | 太宗 12(1412) | 1 | 古貴0237–15 |
| 4 | 史記 | 司馬遷 撰 | 庚子字 | 世宗 7(1425) | 1 | 일산貴221–32 |
| 5 | 釋譜詳節 | 首陽大君 奉命撰 | 初鑄甲寅字 | 世宗 31(1449) | 4 | 한貴古朝21–243 |
| 6 | 論語集註 | 朱熹 集註 | 再鑄甲寅字<br>(庚辰字) | 宣祖 13(1580) | 1 | 古1239–139 |
| 7 | 詩傳大全 | 胡廣 受命編 | 三鑄甲寅字<br>(戊午字) | 光海君年間<br>(1609–1622) | 1 | 古貴1233–69 |
| 8 | 潛谷先生年譜 | 編著者未詳 | 四鑄甲寅字<br>(戊申字) | 顯宗 11(1670) | 1 | 일산古2511–10–22 |
| 9 | 慶運宮賡載錄 | 英祖外諸臣 著 | 五鑄甲寅字<br>(壬辰字) | 英祖 49(1773) | 1 | 일산古3649–13 |
| 10 | 唐宋八子百選 | 正祖 編 | 六鑄甲寅字<br>(丁酉字) | 正祖 5(1781) | 3 | 古朝44–나5–1 |
| 11 | 資治通鑑綱目 | 朱熹 撰 | 丙辰字 | 世宗 20(1438) | 2 | 일산貴221–33 |
| 12 | 十一家註孫子 | 孫武(周) 撰,<br>吉天保(宋) 集註 | 乙亥字 | 宣祖 10(1577) | 1 | 古698–66 |
| 13 |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 佛陀多羅 譯 | 乙酉字 | 世祖 11(1465) | 4 | 일산貴1740–5 |
| 14 | 纂註分類杜詩 | 杜甫 著 | 甲辰字 | [發行年不明] | 2 | 의산古3717–126 |
| 15 | 新增東國輿地勝覽 | 李荇 等受命編 | 癸丑字 | 宗 25(1530) | 1 | 古貴2700–9 |
| 16 | 纂註分類杜詩 | 杜甫 著 | 丙子字 | 中宗 18(1523) | 1 | 일산貴3717–60 |
| 17 | 三國史記 | 金富軾 撰 | 顯宗實錄字 | [發行年不明] | 10 | 古朝53–가12 |
| 18 | 行軍須知 | 金錫胄 編 | 韓構字 | 肅宗 5(1679) | 1 | 일산古692–24 |
| 19 | 樂全先生歸田錄 | 申翊聖 著 | 校書館印書體字 | 肅宗 10(1684) | 1 | 일산古3644–52 |
| 20 | 孤靑先生遺稾 | 徐起 著 | 栗谷全書字 | 英祖 26(1750) | 1 | 古3648–33–4 |
| 21 | 園幸乙卯整理儀軌 | 正祖 命編 | 整理字 | 正祖 20(1796) | 7 | 일산古159–21 |
| 22 | 兒戲原覽 | 張混 編 | 整理字體鐵活字 | 純祖 3(1803) | 1 | 일산古031–25 |
| 23 | 高麗名臣傳 | 南公轍 編 | 全史字 | 純祖 22(1822) | 6 | 일산古2513–36 |
| 24 | 楊州趙氏族譜 | 趙貞喆 編 | 筆書體鐵活字 | 純祖 25(1825) | 7 | 일산古2518–72–2 |
| 25 | 算術新書 | 李相卨 編 | 新鉛活字 | 光武 4(1900) | 2 | 일산古7100–4 |

* 자료에 대한 상세서지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메인화면 〉 소통 · 참여 〉 도서관소식 〉 전시행사
http://www.nl.go.kr/nl/commu/libnews/exhibition_list.jsp

# 古典에서 만난 우리 금속활자

## 고문헌 강좌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와
세계기록유산 직지(直指)의
인류문화사적 의미



#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와 세계기록유산 직지(直指)의 인류문화사적 의미

남윤성 [1)]

## 1.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필자는 1995년 이래 지금까지 ‘금속활자와 직지(直指)’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를 7편 제작했다.[2)] 그동안 국내외의 이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취재해온 결과, 필자는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문화유산은 다름 아닌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라고 확신한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를 나온 사람이라면 사회나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으로, 1234년 「상정예문」을 금속활자로 인쇄했고, 이는 독일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이상 앞섰다”고 여러 차례 배웠고, 시험문제에도 단골로 출제됐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가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래서 당연히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무색무취하게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설사 금속활자 인쇄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독일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 금속활자 인쇄를 했으면 뭐하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는 세계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친 게 없다. 우리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독일 구텐베르크의 영광, 그 세계사적 위상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일부 학자들마저 자조적 입장에서 이 같은 논리를 펴고 있어 필자는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곤 한다.

---

1) 1984년 청주MBC PD로 입사하여 편성국장, 문화사업국장 역임.

2) 청주MBC창사25주년특집다큐 〈직지〉(1995년) *한국방송대상(지역부문 작품상) 외 2개 부문 수상
청주MBC창사30주년특집다큐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3부작〉 1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 2부: 금속활자 발명국 한국인가? 중국인가?, 3부: 한국의 금속활자 세계로 가다(2000년) *한국방송프로그램21상 대상 외 7개 부문 수상
청주MBC창사33주년특집다큐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 그 원류를 찾아서 2부작〉 1부: 구텐베르크는 발명가인가?, 2부: 활자로드는 없는가?(2003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외 2개 부문 수상
청주MBC창사36주년특집다큐 〈직지의 최초 발견자 콜랭 드 플랑시〉(2006년) *MBC전국TV작품경연대회 동상

## 2. 역사 발전과 금속활자 인쇄술의 관계

미국의 세계적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윌버 슈람(Wilbur Schramm)은 4번에 걸친 정보혁명을 통해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왔다고 했다. 첫 번째 정보혁명은 인간이 동물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은 물론 논리에 이르기까지 자기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 두 번째 정보혁명은 말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 세 번째 정보혁명은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 네 번째 정보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의 개막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문명이 가능하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바로 제3차 정보혁명,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1997년 미국의 세계적인 언론사인 타임(TIME)사에서는 지난 천년 세상을 움직인 100대 사건을 선정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으로 1455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42행성서」[3]를 금속활자로 인쇄했던 역사적 사실을 꼽았다. 선정 이유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이나 산업혁명, 시민혁명 등이 불가능했고, 오늘날 민주주의 역시 이 인쇄술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이다.[4]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아이젠슈타인(E.L. Eisenschtain)은 "인쇄술이야말로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과학의 획기적 발전을 일으켜 근대사회를 불러 왔다"고 강조하면서, "인쇄술은 역사의 충격이었다.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수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인쇄술을 말하며 여러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인쇄술은 모든 분야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동력이었다"[5]라고 했다.

그러나 위에서 학자들이 언급한 인쇄술은 모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이 고려시대 세계 최초로 시작했던 금속활자 인쇄술의 의미는 무엇인가? 도대체 세계 인류문화사 속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은 무엇일까?

## 3. 금속활자 발명국, 고려(高麗)의 인류문화사적 의미

### (1) 최소한 1200년대 초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한 고려

비록 세계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으나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려시대 어떤 역사문헌에도 금속활자 발명 과정에 대해 언급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고려의 금속활자 기원설로 문종조(1046~1083 재위) 기원설, 숙종조(1095~1105 재위) 기원설 등이 있으나 아직 정확히 고증되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 1200년대 초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금속활자 인쇄가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6]

현재까지 금속활자 인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나온다. 1234~1241년 사이 "「상정예문」 50권 28부를 금속활자로 인쇄"해 각 부처에 배포하였다는 것이다.[7]

그러면 「상정예문」 인쇄가 고려시대 최초의 인쇄였을까? 이 시기는 몽골의 2차 침입으로 고려는 강화도에 천도해 있었던 때이다. 외적의 침입과 천도라는 풍전등화의 국가 위기 속에서 금속활자 인쇄술이 탄생된 것일까? 몽골에 쫓겨 수도 개성을 버리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야 했던 국가적 대위기 상황에서 한가하게 책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 금속활자 인쇄술을 창안하고 성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천도 이후는 국난극복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8] 당연히 강화도에서의 금속활자 인쇄는 천도 이전 이미 개성에서 사용하던 금속활자를 강화도까지 가져와 「상정예문」을 인쇄했을 것이다. 또한 「상정예문」 인쇄가 고려의 첫 금속활자 인쇄였다면 이규보는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 최소한 몇 마디라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국이상국집」〈신인상정문발문〉에는 「상정예문」을 금속활자로 인쇄해 각 부처에 배포했다는 정도의 지극히 간단한 사실만이 기록돼 있을 뿐이다. 강화도에서 「상정예문」을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은 당시 이규보와 최이가 활동하던 그 시기 전혀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따라서 「상정예문」을 금속활자로 인쇄하던 그 시기는 고려 조정에서 이미 '금속활자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 있던 시기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이다.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남명천화상 송증도가(南明泉和尙 頌證道歌)」[9]가 있다. 이 책의 맨 뒤에는 진양공 최이가 쓴 글이 있고 여기에는 "중조 주자

3) 이 『42행성서』는 독일의 구텐베르크(1400–1465)에 의해 1455년 인쇄되었으며, 이 성서의 행이 모두 42행인 까닭에 『42행성서』라고 부르고 있다.
4) 『The Life Millennium–100 most important events and people of the past 1000 years』 미국 Time사, 1997
5) 김민환 『동아시아의 근대신문 지체요인』나남출판,1999, p16

6) 천혜봉 『한국서지학 연구』 고산 천혜봉 교수 정년기념 선집 간행위원회, 1991년, pp 736~748.
7) 이규보의 문집『동국이상국집』권11에는 "新印詳定禮文跋尾 代晋陽公行' "...鑄字印成 五十卷 二十八本 分付諸司" 즉, "새로이 『상정예문』을 인쇄하며 진양공을 대신하여 발문을 쓴다...50권 28부를 금속활자로 인쇄해 정부 각 부처에 배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가 예전 교과서에서 『고금상정예문』또는 『상정고금예문』으로 배웠으나,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는 분명『상정예문』으로 나와 있다.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글은 당대의 대학자 이규보가 당시 무인정권의 최고실력자 진양공(晋陽公) 최이(崔怡)를 대신하여 쓴 것으로, 『상정예문』을 언제 금속활자로 인쇄했는지 연도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최이(최충헌의 아들)가 진양공에 오른 해가 1234년이고 이규보가 사망한 해가 1441년인 관계로 『상정예문』이 1234년에서 1241년 사이에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정예문』은 고려 무인정권 최고 권력자인 최이의 명에 의해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요즘 말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쇄된 것이다. 상정예문』은 조선시대 『국조오례의』처럼 국가의 모든 의식을 성리학적 질서인 예에 따라 하기 위해 정한 법규집이다. 『동국이상국집』에는『상정예문』을 50권 28부를 인쇄해 정부 각 부처에 배포했다고 나오는데 책이 전해 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매우 방대한 양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규보는 무신난을 평정한 최충헌에 이어 최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최고위직 문신을 지낸 당대의 대학자였다.
8) 천혜봉, 전게서 p.749
9) 이 책의 원본은 중국의 남명 법천 화상이 선종의 진리에 대해 논한 것으로 1076년 중국 절강성에서 초간본이 나왔고, 줄여서 흔히 「증도가」라 부른다. 이 책은 고려에도 수입되어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9월 경북대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를 인쇄한 금속활자가 존재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진위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본(重彫鑄字本)...기해(己亥) 9월(九月)"이라는 기록이 있다. '중조(重彫)'란 "책장을 뜯어 목판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새겨 책을 찍어냈다"는 뜻이고 이렇게 만든 책을 학계에서는 번각본(飜刻本)이라 부른다. 「증도가」 번각본을 만든 해가 기해년, 즉 서기 1239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239년 이전에 찍어낸 주자본(鑄字本), 다시 말해 금속활자본 「증도가」가 있었기에 번각본 제작이 가능했던 것이다. 번각으로 책을 다시 찍어내는 것은 기존의 간행한 책이 세월과 함께 많이 없어져 똑같은 책을 다시 만들 필요가 생길 경우 사용하는 기법이다. 본래의 금속활자본 「증도가」가 강화도 천도 후 전란으로 없어졌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 금속활자본 「증도가」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번각본 「증도가」를 찍어냈을 것이다. 따라서 금속활자본 「증도가」는 강화도 천도 이전 개성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10]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정예문」보다 먼저 「증도가」가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했던 1232년 이전에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1200년대 초에 수도 개성에서 금속활자 인쇄가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상정예문」이나 「증도가」는 물론 발명 직후 내지는 초기에 인쇄된 책들이 오늘날 하나도 전해오지 않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인쇄 실물 가운데 유일한 것이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고려 우왕 3년, 즉 서기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백운화상 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직지(直指)」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있는 이 책은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보다 정확히 78년 앞서 인쇄된 것으로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를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인쇄 실물이다.

### (2) 금속활자 발명은 시대적 요청의 산물

최소한 1200년 초 고려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사용해 책을 찍어내 지식과 정보를 유통하고 있을 때, 중국은 700년대부터 사용해온 목판 인쇄술에 만족하고 있었고, 서양에서는 필사(筆寫), 즉 펜으로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드는 방법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중국이 쇠를 다루는 기술이 없어 목판으로 책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거나, 서양에서는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기술조차 없어 목판인쇄도 못하고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드는 방법 밖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은 이미 기원전 한나라 때에 주형(鑄型)에 쇳물을 부어 동일한 모양의 동전을 수없이 만들어냈고, 기원전 로마시대에 제작된 온갖 무기와 장신구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중국이나 서양에서 목판이나 필사의 방법으로 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책을 만들어 지식과 정보를 유통해도 그 당시 사회에서 별다른 불편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의 빠른 유통을 요구하는 시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 천혜봉, 전게서 p 750.



그러나 고려의 경우 정확히 언제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은 그동안 사용해온 목판 인쇄술에 대해[11] 어느 시대에 이르러 너무나 큰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다. 불편의 핵심은 책을 만들어 내는 '속도'의 문제였다. 금속활자 인쇄는 책을 만들어 내는데 필사 또는 목판 인쇄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목판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를 자르고, 나무가 뒤틀어지지 않도록 삶아 찐 후 말린다. 그리고 종이에 일일이 글자를 써서 목판에 뒤집어 붙인 다음 글자를 하나씩 칼로 새겨 나간다. 모든 판이 다 완성되면 먹을 발라 인쇄한다. 목판 인쇄는 한번 판을 새겨 놓으면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목판에 먹을 바르고 책을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목판 인쇄의 단점은 목판을 깎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많은 목판을 보관하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목판은 벌레 먹어 썩기 쉽고 여러 번 반복하여 인쇄를 하다보면 글자 획이 닳거나 아니면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까지 있어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는 큰 단점이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점은 다른 책을 만들 때마다 일일이 목판을 다시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금속활자는 처음 활자를 만들 때 초기 투자비용이 목판에 비해 많이 들지만, 글자를 하나씩 주물로 떠내 만들어 놓으면 다른 책을 찍을 때마다 글자를 뽑아 조판(組版)과 해판(解版)을 거듭하며 수많은 종류의 책을 순식간에 찍어낼 수 있다. 재료 역시 금속인 관계로 반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쇠를 다루는 기술을 책을 만드는데 접목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바로 고려였다. 금속활자 인쇄술이야말로 책을 만드는데 있어 가히 혁명적인 법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빨리 빨리' 유통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시대적 요청'이 없었다면 고려는 책을 만들 때 중국처럼 목판 인쇄를, 중국만도 못했다면 아마 서양처럼 필사에 만족하고 있었을 것이다. 책을 빨리 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요청' 즉 "필요가 발명을 이끌어 낸 것"이다. 따라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한 고려는 한마디로 당대 세계 최고(最高)의 지식정보강국이었다.

중국에서는 1490년대 〈화씨회통관(華氏會通館)〉이라는 민간차원에서 금속활자 인쇄가 처음 시작됐다.[12]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한 것은 1726년 청나라 옹정제 때의 일다. 서양에서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42행성서〉를 인쇄한 것이었다.

중국이나 독일은 1400년 중후반에 와서야 보다 빨리 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요청이 생겼던 것이다.

현재까지 기록에 의하면 세계 최초로 활자 인쇄술에 도전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1041년 북송(北宋)의 필

11) 목판인쇄는 중국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목판인쇄를 시작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현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은 경주 석가탑에서 출토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서기 751년경 인쇄된 것으로 보고 있다.

12) 청의 3대 황제 강희제(1661~1722 재위) 때 시작한 대출판사업의 일환이었던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이 4대 황제 옹정제 (1722~173 재위) 때인 1726년 동활자로 인쇄되었다

승(畢昇)이란 평민이 흙으로 활자를 만들어 불에 구워낸 후 이 흙활자를 한자씩 조판을 하여 인쇄에 도전했던 기록이 있다.[13] 그러나 흙으로 활자를 만들었던 관계로 쉽게 파괴되고 내구성이 없어 실용화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만약 중국에서 활자 인쇄술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있었다면 당연히 필승의 흙활자 인쇄술은 발전을 거듭하여 금속활자 인쇄술로 완성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폭넓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승의 활자 인쇄술은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 그후 원나라 때 왕정(王禎)이란 지방관리가 1313년에 목활자로 「농서(農書)」 22권을 간행한 바 있으나 이 목활자 역시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되지 못하고 그냥 이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최첨단 정보전달수단이었던 활자 인쇄술은 중국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시대적 요청이 없었기에 그냥 그렇게 사장(死藏)되고 말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3) 금속활자 발명을 이끌어 낸 고려의 문화적 배경

918년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하여 수많은 사찰을 건립하는 한편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으면서 이미 태조 때에 개경학(開京學), 서경학(西京學)이란 교육기관을 세웠으며, 광종 때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이어 성종 11년(992년)에는 수도 개경에 국자감(國子監)이란 국립대학을 설립했다. 그리고 지방의 12목(牧)에는 경학박사(經學博士)를 파견하는 등 일찍부터 고려는 교육을 통한 학문의 발달이 진행되었다. 또한 내서성(內書省), 비서성(秘書省), 비서감(祕書監), 전교시(典校寺)를 비롯해[14] 서적포(書籍鋪),[15] 서적점(書籍店), 서적원(書籍院)[16] 등 책의 간행과 비치(備置)를 전담하던 이른바 국립도서관이 고려 말까지 계속 존재했다. 비록 지배계층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고려는 유불문화(儒佛文化)가 공존하며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여 지식문화가 융성했던 왕조였다.

고려사에는 고려가 지식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 있다. 「고려사」 선종 8년(1091년) 편에는 송나라 철종이 고려에 책이 많음을 알고 사신을 통해 고려에 엄청난 양의 책을 요청했던 기록이 있다. 바로 〈구서목록(求書目錄)〉이다. 이 목록에는 총 128종에 4,992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책 제목이 등장하고 있다. 당나라에 이어 문화통치를 이어온 송나라에서 자국에 없는 책을 고려에 특별히 주문했던 이다. 고려는 한마디로 '책의 나라'였던 것이다.

원래 고려에서도 〈조선왕조실록〉처럼 하루하루의 국정을 일기처럼 기록했던 〈고려왕조실록〉이 있었다고

13) 심괄(1031~1095)의 저서 「몽계필담(夢溪筆談)」에는 필승이 교니활자(膠泥活字:교니라는 흙으로 만든 활자)로 책을 인쇄하고자 했던 사실이 기록돼 있다.

14) 고려 초기 세워진 내서성은 성종 14년(995년)에 비서성으로, 충렬왕 24년(1298년)에는 비서감으로, 충렬왕 34년(1308년)에 전교시로 개정했다.

15) 숙종 6년(1101년) 국립대학인 국자감 안에 서적포를 설치하고, 비서성에 소장되어 있던 모든 책판(冊板)을 이곳에 옮겨 널리 인쇄 보급하게 하였다. 서적포를 설치한 것은 비서성의 책판이 훼손되고, 사학(私學)의 번성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된 관학(官學)을 진작시키기 위해서였다.

16) 문종 때 책의 간행을 위해 서적점을 설치하고, 충선왕 1년(1309년) 한림원(翰林院)에 일시 합병하였다가 분리했으며, 공양왕 4년(1392년) 서적원으로 개칭했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려왕조실록〉은 조선 개국 후 〈고려사〉로 축약되고 원본은 모두 파기되었다고 한다. 만약 〈고려왕조실록〉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아마도 금속활자 인쇄술을 필요로 했던 시대 상황과 배경, 발명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 4.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직지(直指)』

### (1) 『직지』의 개요

현재까지 발견된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인쇄물로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직지」가 유일본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지」의 원제목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 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17]이고 「직지」라는 약칭으로 가장 널리 불리고 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에는 "선광 7년 정사 7월 청주목외 흥덕사 주자인시(宣光七年 丁巳 七月 淸州牧外 興德寺 鑄字印施)"라는 간기(刊記)가 있다. 풀이하면 "선광[18] 7년, 즉 고려 우왕 3년, 서기로는 1377년에 청주목 외곽에 있는 흥덕사라는 절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해 펴냈다"는 것이다. 흥덕사에서는 「직지」를 간행하며 인쇄 연대와 인쇄 장소, 인쇄 방법을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직지」는 원래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으나[19] 현재 전해오고 있는 금속활자본 「직지」는 첫 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의 하권 1권뿐이며, 이 책은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 특별서고에 깊숙이 소장되어 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프랑스로 가져간 사람은 조선에 부임해왔던 주한프랑스 초대공사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였다. 그는 1890년대 말에 조선에서 「직지」를 만나 프랑스로 가져가 1911년 「직지」를 경매에 붙여 팔았고, 「직지」를 사간 앙리 베베르(Henri Vever)의 유언에 의해 1952년 「직지」는 프랑스국립도서관에 기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직지」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72년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책(Livre)'이라는 제목의 특별전을 통해 「직지」를 처음 공개, 전시한 이후부터이다.[20]

17) 백운화상이 초록했던 원저서 『불조직지심체요절』은 중국 원나라 때의 석옥 청공 화상이 편찬한 책으로 역대 불조사(佛祖師)들의 어록에서 선의 요체에 대해 언급한 내용 중 핵심을 발췌, 수록해 놓은 책이다. 백운화상이 이 책의 내용을 다시 초록하고, 원래의 책에 없던 신라의 고승 1명(대령선사)의 이야기를 별도로 추가, 수록해 놓았다. 백운화상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인 석찬(釋璨)과 달잠(達湛)이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해 펴냈다. 중심주제인 직지심체(直指心體)는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가졌을 때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18) 선광(宣光)은 북원(北元, 중국 명나라 초 몽골로 쫓겨간 이후의 원나라)의 소종(昭宗)이 사용했던 연호.

19) 여주 취암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직지』가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서각(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각각 1책씩 소장되어 있는데 상,하 2권 전 내용이 다 실려 있다. 장서각의 목판본 『직지』는 보물 1132호로 지정돼 있다.

20) 1972년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책' 전시회 이전 1901년에 발행된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Bibliograpie Coreenne)」에 '이미 「직지」가 소개된 바 있다.(목록번호:3738번)

(2) 『직지』의 인류문화사적 의미

1985년 청주시 상당구 운천동 일대에서 대규모의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개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직지」를 인쇄한 흥덕사 절터를 발견했고[21],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세계에 자랑하고 기념하기 위해 1992년 흥덕사 절터 한편에 청주고인쇄박물관(淸州古印刷博物館)을 세웠다. 또한 청주시에서는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리기로 하고 약 2년간에 걸친 노력[22] 끝에 드디어 2001년 9월 4일 「직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UNESCO)에 등재되었다.[2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직지」는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이 책은 인류의 인쇄 역사와 기술 변화를 알려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다"라고 하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유를 밝히고 있다.[24]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청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4년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상(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 UNESCO)'을 제정하고 격년제로 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기록과 정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은 최소한 1200년을 전후한 시점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여 책을 찍어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직지」 이전의 금속활자 인쇄물은 현재까지 1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직 직지 1권만이 전해오면서 금속활자 발명국 고려의 웅대한 문화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직지」마저 전해오지 않았다면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발명 사실 자체마저 부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쇄 실물증거 없이 단순한 기록만으로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직지」가 가진 인류문화사적 의미의 첫 번째 중요한 점이다.

두 번째 「직지」의 중요성은 「직지」야말로 금속활자로 찍어낸 인쇄실물인 관계로 세계 최초로 발명한 고려시대의 인쇄 기술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어 유일한 자료라는 것이다.

세 번째 「직지」의 중요성은 최첨단 미디어인 금속활자 인쇄술이 중앙정부에서만이 아닌 청주라는 지방도시의 사찰에서까지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당대 최고의 지식정보강국, 고려의 높은 문화적 수준이 수도 개성에 제한되지 않고 전국적 현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직지」는 우리나라 일개 지방 도시인 청주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직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 고려의 웅대한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실물 증거이며, 우리 역사 또는 민족문화의 세계사적 위상을 알려주는 상징 바로 그 자체가 아닌가!

## 5. 맺는 말

고려는 세계 최초로 '미디어 혁명'을 일궈낸 당대 세계 최고의 지식정보강국이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민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며 일부 알만한 학자들마저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세계사에 기여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라고 하며 자조적 멘트를 날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

지금 청주시에서는 연간 몇 십억의 예산을 투자하며 〈직지 세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청주 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은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와 「직지」의 인류문화사적 중요성과 세계적 위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기념하는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

지난 2005년 미국 부시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 독일 정부에서는 양국정상회담의 첫 개최지를 마인츠로 정하고 부시 대통령을 구텐베르크 박물관으로 안내했다. 부시 대통령은 구텐베르크박물관을 둘러보고 "독일은 세계사의 진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독일국민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찬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정상을 청주고인쇄박물관이나 흥덕사지로 안내했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바 없다.

지금까지 청주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해온 〈직지 세계화〉 사업을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그리고 「직지」기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첫 단계로 먼저 「직지」를 기념하고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 세운 청주고인쇄박물관을 현재의 청주시 사업소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전환해 그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와 「직지」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한 한국의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학문적으로 분명히 정립해 놓아야 할 과제도 많다. 지난 90년대 말부터 중국학자들이 적극 주장하고 있는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에 대한 전면적 부정[25]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그리고 활자로드(TYPE ROAD)[26]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규명[27] 등이 그 대표적 과제이다.

21) 1985년 청주대학교 발굴조사단은 절터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많은 유물을 발견했고, 결정적으로 '흥덕사'라는 명문이 새겨있는 금구(禁口) 1점과 청동그릇 하나를 발굴했다.

2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원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에서 심사, 등재토록 되어 있는데, 생산자(청주시)가 신청하여 등재된 최초의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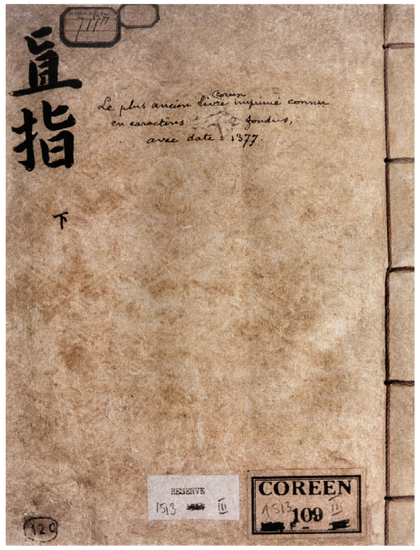
23) 2001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자문위원회가 청주에서 열렸고, 9월 4일 「직지」는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와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 날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승정원의 기록 「승정원일기」(국보303호)도 함께 등재됐다. 청주에서는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9월4일을 〈직지의 날〉로 정하고 격년제로 〈직지축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직지」에 앞서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24) http://portal.unesco.org/ci/en/ev.php-URL_ID=3946&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25) 1990년대 말부터 반길성(潘吉星), 사금파(史金波) 등 중국의 대표적 학자들은 한국이 금속활자 발명국임을 부정하고 중국이 금속활자 발명국임을 주장하는 논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고, 1997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린 '동서 고인쇄문화 심포지엄'에 참가한 중국사회과학원의 반길성

끝으로 이러한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며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그리고 직지'에 대한 인류문화사적 의미와 그 높은 위상이 전 세계 교과서에 당당하게 실릴 그 날을 기대한다.

■ 참고 사진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 소장된 「직지」 원본 표지

「직지」 표지 상단부에 쓰여 있는 불어 글씨는 직지를 한국에서 수집한 주한프랑스초대공사 콜랭 드 플랑시가 쓴 것으로 "이 책은 한국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세계에서 연대가 가장 앞선 책이다"라는 내용이다.
오른쪽 하단부에는 '한국고서 109번'이라는 색인표가 붙어 있고, 왼쪽 상단부 '직(直)'자 옆에는 「직지」가 경매장에 나왔을 때 붙여진 '711번'이라는 표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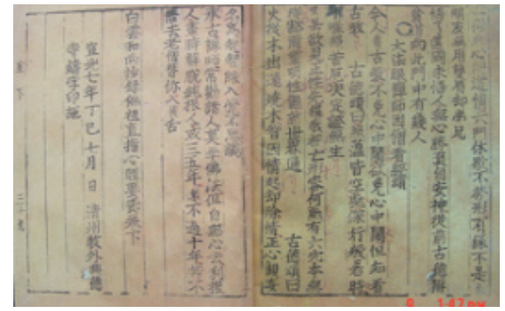
(潘吉星)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성전(聖戰)에 출전하는 기분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학자들의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 지난 2000년 청주MBC에서는 특집다큐멘터리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3부작 "제2부: 금속활자 발명국 한국인가? 중국인가?"(2000.9.29.방송)에서 조목조목 비판하며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지금까지 유럽은 물론 한국의 거의 대부분 학자들마저 독일 구텐베르크를 '독자적인 발명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비단이 서양으로 넘어간 길, 즉 '실크로드(Silk Road)'가 존재하듯이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기술이 서양으로 넘어갔다면 '활자로드(Type Road)가 있을 것이다.

26) 청주MBC에서는 청주고인쇄박물관과 공동기획으로 2년의 제작기간으로 활자로드의 존재 여부를 집중 탐사한 바 있다. 영국의 동서문명교류 연구학자인 허드슨(G.F.Hudson)은 한국이 금속활자 인쇄술이 유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텐베르크는 이미 기술의 절반을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1961년 「유럽과 중국(EUROPE AND CHINA)」 169~168p)

27) 청주MBC특집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 그 원류를 찾아서〉2부작 "제1부: 구텐베르크는 발명가인가? 제2부: 활자로드는 없는가?"(2003.12.26 방송).



■ 참고 사진



「직지」 마지막장 사진

왼쪽 마지막 두줄에 "宣光七年 丁巳 七月 淸州牧外 興德寺 鑄字印施(선광 7년 정사 7월 청주목외 흥덕사 주자인시)"라는 간기(刊記)가 있다. 선광 7년, 즉 고려 우왕 3년, 서기로는 1377년에 청주목 외곽에 있는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해 펴냈다"는 내용이다.

「직지」를 인쇄한 흥덕사지(興德寺址) 전경

1985년 흥덕사 절터를 발견하고 사적 315호로 지정한 후 절터에 금당과 탑을 복원해 놓았다.